高大校友會報

The Korea University Alumni News

2006년 9월 8일 (금요일) www.kuaa.or.kr 【월간】 제434호

고대교우회 KORE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1905

교우회지표

1. 참여하는 교우회 2. 봉사하는 교우회
3. 긍지를 갖는 교우회 4. 모교를 돕는 교우회

KOREA UNIVERSITY 100 GLOBAL PRIDE

이달의 지면

02 문과대 60주년 기념행사
05 교우회 장학증서 수여식
07 서정비전선포 기념 KBS열린음악회
16 초대석 | 노진환 교우
18 교우포스트
S4 교우 신간 안내
S7 교우포커스 | 오승연 교우

정기고연전

9월 22일(금) 개회식 14:00
야 구 15:00
농 구 17:00
빙 구 18:00 (목동)
23일(토) 럭 비 14:00
축 구 16:00

가슴속에 터지는 함으로 힘으로
호적수를 눌러라! 울려라! 승전고를!
지성의 힘으로, 야성의 힘으로!

잠실벌에서 고대의 열정을
동료, 가족들과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23일 저녁에는 안암로타리와 잠실이김에서 선후배간의 뒷풀이 축제가 무료로 열립니다.
(문의 ☎3290-1241)

高麗大學校校友會

총장 초청 66학번 모교방문

9월 28일(목) 오후 6시
모교 타이거돔
부부 동반 행사입니다!
☎ 02-953-2105 대외협력부

76학번 모교방문행사

10월 14일(토) 오후 5시 30분
모교 타이거돔
가족 동반 환영합니다!

모교발전기금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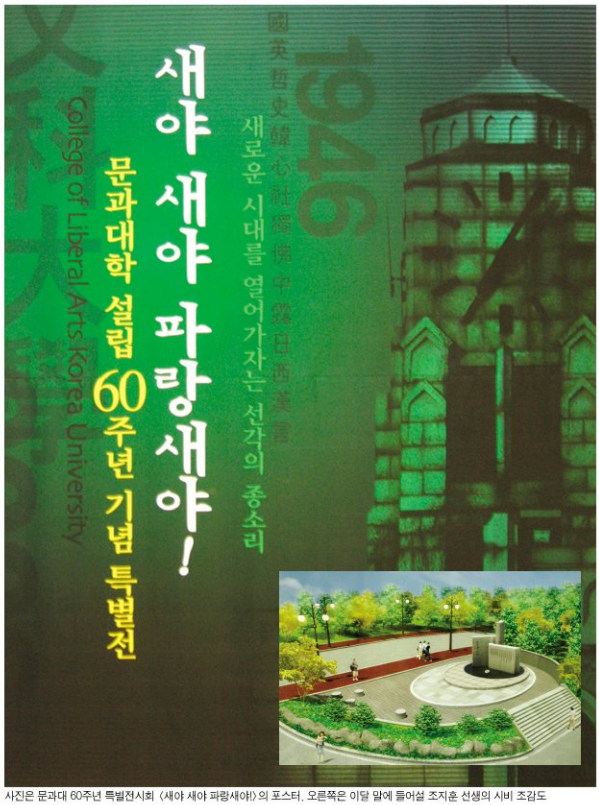
060-700-0505

2006. 8. 31. 현재 41,996동 (1통화당 5천원)

※한통화의 작은 정성이 큰 고대를 만듭니다.

고대교우회보 1907년 9월15일 창간 · 발행인 차홍조 · 편집인 황윤원 · 편집국장 손대원 · 발행처 (財)高大校友展學會 · 136-7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29-26 고대교우회관 504호 · 은 행 지 로 7500011 · FAX 921-2598 · 편집국 E-메일 kou@chol.com · 대표전화 ☎1588-1905

별지 발간 (S1~S16)
교우회보는 매월 40면 발행합니다
24만 고대인의 정론지 고대 교우회보



사진은 문과대 60주년 특별전시회 〈새야 새야 파랑새야!〉의 포스터. 오른쪽은 이달 말에 들어설 조지훈 선생의 시비 조감도

조지훈 시비(詩碑)부터 김훈 '칼의 노래' 까지

단과대 아닌 전체대학 규모의 성대한 행사 … 특별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커버 스토리

문과대학 6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 및 각종 기념행사

9월 1일 오후 5시 모교 박물관(관장=최광식 · 사학72 · 한국사학과 교수) 기획전시실에서 문과대학 설립 6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이 열렸다. 경과보고를 맡은 최광식 교수는 "김민수, 박경자(영문60) 교수 등 교우 문들과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조광(85 박사 · 한국사학과 교수) 문과대 학장, 박준구(철학62) 문과대학 교우회장, 어윤대(경영63) 총장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과대학 설립 60주년 행사 중에서도 특히 조지훈 선생의 시비 제작은 오래 전부터 기획되어 온 것이라 단연 화제다. 모교 국문과 교우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훈시비건립위원회는 오는 29일 조지훈 선생의 시 "낙들 마음 우리가 안다" 시비 제막식(사진下)을 연다고 밝혔다. 이 시는 4 · 19혁명이 일어난 지 보름 뒤인 1960년 5월 3일 고대신문에 학생들에게 찬사를 보낸 시로서 이번 시비 제막으로 46년 만에 세상에 고개를 다시 내민 셈이다.

이날 문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쓴 김치규(영문46) 교수, 윤재명(국문52) 교우에 대한 제1회 문과대학 발전상 수여식이 있었다. 시상은 박준구 회장, 어윤대 총장, 조광 학장 세 분이 맡았다. 행사 참석자들은 약 30여분간 전시실을 둘러본 뒤 행사의 2부가 열릴 백주년 기념 삼성관 5층으로 이동하여 만찬을 함께 했다. 〈관련기사2면〉



"새야 새야 파랑새야" 문과대 설립 6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



독특한 아이디어로 눈길을 끈 심리학과 전시품



왼쪽부터 최광식 박물관장, 어윤대 모교 총장, 박준구 문과대 교우회장



과거 모교의 졸업식 풍경(사진左) 조지훈 선생 유품(右上)
홍성원 교우의 「D-DAY의 兵村」 초고(右下)

"다시핀 녹두꽃, 60년 역사의 숨결을 느낀다"

문과대학 60주년 기념식

"인문학의 위기라 클라는 이 시대에 문과대학 60년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세 시대를 맞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9월 1일 오후 5시 모교 박물관(관장=최광식 • 사학72 • 한국사학과 교수) 기획전시실에서 모교 문과대학 설립 6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 사다. 2007년 1월까지 계속되는 문과대학 60주년 기념행사의 주무대가 열린 셈이다. 이날 조광문과대학장은 인사말에서 "단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미래를 기획하는 계기가 돼야 하며 문과대학의 새로운 미래를 찾아 나가야 할 것"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준구(철학62) 문과대교우 회장은 "지난 60년을 회고할 때 모교의 힘을 느낄 수 있다. 혼돈과 격동의 시기에 정신적 문화적 지주로서 인재를 배출한 문과대학의 축제가 시작됐다" 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어윤대 총장은 축사에서 "모교 문과대학은 당당히 국내 1위로서 인문학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제는 글로벌 리더의 요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문과대학의 앞날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고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각 학과의 창립과 이를 기념하는 행사 역시 9월 2일(토) 노문인의 날을 시작으로 △14일(목) 영문인의 날 △20일(수) 심리인의 밤 △21(목) 사학과의 날 △28일(목)서문인의 밤, △29일(금) 국문인의 날이 열린다. 특히 국문인의 날 행사에서는 조지훈 선생 시비 제막식이 함께 열려, 문과대뿐만 아니라 모교 전체의 지성의 사표인 조지훈 선생의 정신을 기리게 된다. 그밖에 국내 석학 초청강연회로는 9월 12일(화) 철학과에서 학술원 회원인 김충렬 교수를 통해 「중국철학에 있어서 고증학의 문제」 9월 19일(화) 일문과에서 김운용 한양대 명예교수를 연사로 「언어로 본 한일비교 문화수학과 언어학」이 개최된다. 이어 9월 26(화) 노문과에서는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를 초청 「역사 쓰기와 역사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디지털 문명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독문과 주관으로 10월 24일(화) 강연을 한다. 김기석 모교 명예교수는 심리학과 주관의 「마음과 신체」라는 주제로 11월 1일(수) 석학초청 강연회를 실시한다. 이미 지난 1학기 중에 9개학과에서 석학 초청 강연회를 마친 상태로, 문과대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한국 인문학의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로 되고 있다.

한편, 10월 11일(수) 『세계체제론』의 저자인 미국 예일대 월러스타인 교수를 초청해 「미국 패권주의의 몰락」에 대해 강연을 듣는다. 2007년 1월 10일(수)에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노암 촘스키 미국 MIT대학 교수를 초청한다. 이처럼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문과대학 설립 60주년의 행사가 이번 특별전을 분기점으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2만1천 문과대인과 24만 교우, 한국 인문학에 올림을 주고 있다.

문과대학 60주년 기념 행사 일정

▶ 학과별 행사
- 9월 14일 : 영문인의 날
- 9월 20일 : 심리인의 밤
- 9월 21일 : 사학과의 날
- 9월 28일 : 서문인의 밤
- 9월 29일 : 국문인의 밤
  - 조지훈시비 제막식
  - 국문과 교우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회행사

▶ 해외석학 강연
- 10월 11일 : 임마뉴엘 월러스타인 미국 예일대학 교수
- 2007년 1월 10일 : 노암 촘스키 미국MIT대학 교수

▶ 기념 심포지엄 : Ⅰ. 세계화시대의 대학과 자유·정의 전리
- 9월 15일 : 대학과 자유
- 10월 13일 : 대학과 정의
- 10월 27일 : 대학과 진리

▶ 기념 심포지엄
10월 19일~21일 : Ⅱ. 번역과 인문학

▶ 기념 심포지엄
11월 10일 : Ⅲ. 사회문화적 변동, 재구성되는 여성의 삶

문과대 60주년 특별 좌담회 개최

46년부터 시작된 문과대의 역사 … 한국 인문학의 산 역사



문과대학 6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가 지난 11일(금) 오전 11시 30분 모교 교우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문과대학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명한다"라는 주제로 문과대 교우회 부회장 윤은기(심리71) 교수가 사회를 보고 18명의 참석자가 특별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과대 1회 입학생인 김치규(영문46) 모교 명예교수를 포함해 93학번 허지운(불문93)교수까지 문과대 60년의 역사의 숨결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본관과 중앙도서관(현 대학원 건물) 두동의 건물 밖에 없었던 안암캠퍼스에 문과대학이 처음 생겼을 때의 모습을 시작으로 60년대 사회, 독문, 불문, 교육심리학과 등 4개학과가 신설돼가며 발전해가는 문과대의 모습을 짚어가는 자리가 됐다.

이어 70년대 노문과의 경우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발간한 교재를 사용함으로 인해 불온서적으로 오해를 받았던 일을 회상하기도 했다. 90년대를 회고했던 교우들은 인터넷과 통신문화의 시작을 이야기하며, 학과제가 학부제로 변경됐던 사안을 주요일화로 꼽았다.

하나스퀘어 준공식 … 과학 고대 '광장' 이 열렸다

모교 중앙광장에 이어 애기능 광장 준공 … 연면적 8500평 · 영풍문고 · 버거킹 등 부대 시설 갖춰

하나스퀘어 준공식

모교는 지난 28일(월) 자연계 캠퍼스 지하광장인 하나스퀘어(Hana Square)준공식을 열었다. 하나스퀘어는 지하 3층, 지상 1층에 연면적 8500평에 이르는 대규모 학생복지공간이다. 과학도서관 앞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성큰(Sunken · 배가 물에 떠있는 형상)구조로 지어졌다. 지하 1층에는 강의실과 세미나실, 650석 규모의 열람실, 노트북컴퓨터 전용 열람실 등 학습공간이 마련됐다. 피트니스센터와 공연장, DVD룸, 멀티미디어룸 등 다양한 문화공간과 학습공간이 들어섰다. 지하 2, 3층 주차장에는 차량 750대가 주차할 수 있다.

하나 스퀘어에는 영풍문고, 버거킹, 샌드프레소 등의 부대시설도 함께 들어섰다. 대학 내에 영풍문고가 위치하는 것은 모교가 처음이다. 영풍문고에는 대규모의 문구점과 함께 6~7만권의 책이 구비돼 있다. 영풍문고의 입점으로 학생과 교우들은 국내서적은 물론 해외서적, 수입원서 등도 교내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샌드프레소의 경우 시중과 달리 전 품목을 40% 정도 할인 판매하며 버거킹도 이용객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현승종 법인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자연계 캠퍼스가 하나스퀘어로 인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식사에서 어윤대 총장은 "하나스퀘어는 2002년 인문계 캠퍼스에 완공된 지하캠퍼스 중앙광장과 더불어 한국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준공식 이후 개별 시설물에 대한 이용안내를 마치고, 축하연에서 김두현 교우회 고문은 모교와 하나금융그룹의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제의를 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구두회, 김두현, 김일두 모교 교우회 고문을 비롯해 허은도 교우회 수석부회장, 시라이 카츠히로 와세다대 총장,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정배 모교 前 총장, 정지택 두산산업개발 대표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모교가 국내 최초의 지하광장인 9천평 규모의 중앙광장을 만든 이후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이 벤치마킹을 했다.



새로 준공된 하나스퀘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다. 벌써부터 '하스' 라는 약칭이 생기기도 했다



CJ식품안전관 기공식

CJ식품안전관 기공식이 지난 17일(목) 오전 10시 생명과학대 본관 뒤에서 개최됐다. CJ식품안전관은 식품안전의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물질의 대규모 연구시설 및 식품안전 분야의 인재 배출의 요람이 될 전망으로 기공식은 생명과학대학 부학장 조기종 교수의 사회로 약 30분간 진행됐다. CJ식품안전관은 17일 첫 삽을 떠 07년 11월 완공 예정이며 연면적 1,362평, 지하 1층, 지상 4층에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이 입주하게 된다.

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고, 한국도 다양한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식품안전의 효율적인 연구와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다. 또한 식품안전 연구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부문에서의 중립연구기관에서 선도해 올바른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해 모교 생명과학대학에서는 2년 전부터 대규모 식품안전 연구기관의 설립을 위해 노력했다.

신축될 CJ식품안전관은 지하 1층은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등이 들어선다.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원장실과 행정실이 설치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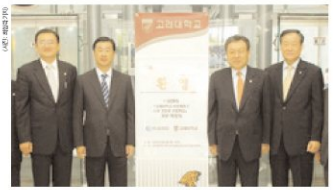


식사에서 어윤대 총장은 "CJ식품안전관이 준공되면 모교 생명과학대학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를 한 김진수 CJ(주)대표이사는 "먹거리에 대한 의식이 커짐에 따라 식품산업은 미래에도 지속적 성장을 가져올 유망한 성업분야"라며 "식품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CJ식품안전관은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춰서 시공을 할 예정"이라며 "한국 식품 산업을 발전시켜주시길 바라며 많은 인재들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득 교우 경상대에 30억 쾌척

기업이윤 사회에 환원 … 서창캠퍼스 석원(石園) 경상관 모교 관계자들



기부식에 참석한 이만득(左두번째)교우와 모교 관계자들

(주) 삼천리그룹 회장인 이만득(경영75)교우가 경상대에 30억을 쾌척했다. 지난 9월 5일(화) 모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기부식 및 약정식에는 모교 어윤대 총장, 이광현 서창부총장을 비롯해 김형배 과학시술대학장, 성영신 학생처장, 이두희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만득 교우는 "현재 「VISION 2010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라는 미전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서창캠퍼스에 경상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부의 의미를 밝혔다. 모교는 이만득 교우의 선친 이장균 회장의 호를 넣어 석원(石園) 경상관으로 명명했다. 기부 약정식은 「서창캠퍼스 석원(石園) 경상관 건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약정식 전달과 내용을 낭독하고, 감사패 증정과 사진촬영의 순으로 이뤄졌다.

한편, 주식회사 삼천리는 석탄산업을 시발로 기업의 굳건한 토대를 구축했으며,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고 국내 제1의 도시가스 기업으로 자리 매김 했다. 또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만이 아니라 주식회사 삼천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다.

채영수 교우 경찰위원장 선출



채영수(법학66)교우가 경찰위원회 6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오는 2009년까지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채 교우는 "경찰의 발전과 경찰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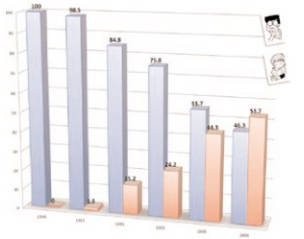
채 교우는 모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14회에 합격한 뒤 서울 민사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03년부터는 법무법인 에이스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김성호 교우 법무부 장관 취임



김성호(법학68)교우가 지난 30일(수)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모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16기(사법연수원 6기)에 합격, 1976년 검찰에 첫 발을 디딘 김 교우는 검사 시절 대검 중수부 2,3,4 과장, 서울지검 특수부 1,2,3 부장을 거쳤다. 율곡 비리(1993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95년) 등을 맡아 왔으며 2003년 건국대에서 '공직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2004년 부패방지위원회와 후신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일해 왔다.

그래프로 보는 모교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문과대 재학생의 남녀 비율이 2006년 역전됐다. 1946년 100%였던 남학생 비율이 60년이 흘러 46.3%로 낮아졌고, 여학생은 매년 증가추세다. 여·남이 같이 하는 모교의 모습은 흐뭇하기만 하다. 그래픽/노승환 기자

선배들이 후배들에 크게 쏜다

정경대 · 68동기회 · 71동기회 · 통계학과 교우회 고연전 뒷풀이 후원



지난해 교우들이 마련한 뒷풀이 자리에 참석한 재학생

와 참살이길에서 열릴 예정인 "경기 후 축제"는 당일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경기 후 축제"의 선후배간 정을 나누는 시간은 모두가 승리자다. 그 승리자인 후배들에게 고연전 "경기 후 축제"의 후원이 정경대 교우회, 68동기회, 통계학과 교우회 등 각 학번 동기회와 교우회 문회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는 9월 23일(토) 안암로타리에서 열릴 어김없이 교우들이 한 턱 내는 자리가 마련된다.

68동기회(회장=이강봉 · 경영)는 삼성동 횟집에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경대교우회(회장=천신일 · 정외61)는 후배들을 위해 YAJA에서 후배들을 기다린다. 통계학과 교우회(회장=김용운 · 통계63)는 술독에서 후배들과 함께한다.

71교우회(회장=윤은기 · 심리)는 독자적으로 respub.Co.D에서 후배들에게 한턱을 내게 된다. "경기 후 축제"는 23일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진행되며, 후배에 대한 예정으로 뒤풀이 행사의 후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회 및 교우회는 모교 대외협력처에 문의하면 된다.(☎3290-1241)

"감사의 마음을 고대농장의 진한 참기름으로!"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고대농장

물 좋고 공기 맑은 덕소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부속농장에서 참기름을 공급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는데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안전성 _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국산 참깨
고품질 _ 첨가물이 전혀 없고 주문시마다 한번만 압축하여 짠 100% 순 참기름
상징성 _ 고려대 상징인 호랑이가 참기름병에 양각
경제성 _ 시중 국산 참기름보다 저렴한 가격

■ 주 문 처 : 고려대학교 부속농장 ☎031-577-6518 이메일 mutterchu@korea.ac.kr
■ 가 격 : 참기름 소(150㎖ x 2) = 20,000원
참기름 중(300㎖ x 2) = 40,000원
참기름 대(300㎖ x 3) = 6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160-25-0001-421(예금주 : 고려대학교), 4만원 이상 주문시 무료 배송

※ 교우님(단체)의 행사를 농장에서 가지신다면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40년대 학번부터 2000년대 학번까지 선후배들은 정을 나누며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선배님께 받은 사랑, 후배와 사회에 갚겠습니다"

총 156명에게 5억 4천여 만원 지급 … 대학 동창회 규모 중에서 단연 최대

2006학년도 제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24일 교우회관 대강당에서 장학금 기탁교우와 수혜 장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교우자녀 장학생 16명 모교 추천 장학생 61명, 개인명의 장학생 76명, 석난 장학생 3명 등 총 156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의 혜택이 주어졌다. 특히 이번 장학금에는 기숙사나 생활관, 도서관 등 80여 곳의 주민공동시설을 기증한 이중근(20정석) 부영 주식회사 회장과 고대 교우가 아닌 김서기 태창가족 대표이사가 장학금을 내놓아 더욱 그 의미를 더했다.

수여식은 교우자녀 장학생 및 모교 추천 장학생 수여에 이어 개인명의 장학생 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두회(사학49) 고문, 박종구(정치51) 교우회장, 오만영(법학55) 장학 위원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기탁 교우들의 릴레이 수여식이 이어졌다.

박종구 교우회장은 격려사에서 "총 156명에게 5억 4천 여 만원이 지급되었다" 며 "이는 전국 대학 동창 규모 중에서도 최대" 라고 손꼽았다. 이 날 해외출장으로 부재한 어윤대 총장을 대신한 이두희(경영76) 대외 협력처장은 축사에서 "장학금 기탁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후배 여러분은 자기 본분을 잊지 말고 학업에 정진하며 선후배간 우의와 모교사랑의 마음을 가질 것" 을 부탁했다. 이 날 장학생 대표로 나선 유일현(통계01) 군은 "후배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며 "모교와 나라를 빛내는 후배들이 되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여자교우회 산하 석난 장학회(이사장=홍소자・영문59)는 교우회 장학증서 수여식과 겸해 이 날 2006년 2학기 석난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석난 장학회는 임미나(식자경05) 양 등 선발된 3명의 장학생에게 한 학기 장학금을 지급했다.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4 세광빌딩 2층. Tel:(02)3482-3900(代), Fax:(02)3482-3934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끝으로 법무법인 세광의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각급 검찰청에서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으로 각 재직하는 동안 매듭이 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법무법인 세광의 대표변호사로서 민사, 형사, 조세, 행정, 상사 등 제반법률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학력 및 경력 **

- 성남고(22회), 고대 법대(36학번)
-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8기) 수료
- 대전, 충성, 부산, 서울동부지검 검사
- 서울동부지청 고등검찰관, 양재지청장
- 광주, 춘천, 창원지검 부장검사
-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 서울동부,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 춘천지검 차장검사, 부천지청 차장검사, 대전고검 검사
- 서울고검 검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2006. 9.

法務法人 世光

代表辯護士 權 五 德 올림

ICP교우회 창립 10주년 기념

서초동 정빌딩에 총교우회 사무실 개소 … 1500여명 교우 네트워크 확장



지난 6일 ICP총교우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교우들

모교 ICP(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최고위과정) 총교우회(∘회장 김영삼 · 04최정)가 창파 10주년을 맞았다. 정보통신붐이 시작된 1996년 모교 정보통신대학원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최고위과정이 생긴 이후 휴면 네트워크를 포함, 기술 습득에서 국내에서 가장 특화된 과정으로 성장했다. 지난 6월 8일에는 서초동의 정빌딩 3층에 총교우회 사무실을 개소하기도 했다. 10년을 맞아 교우회의 독립공간을 연 것.

총교우회 사무실을 준비하고 뜻 깊은 개소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모교 ICP 총교우회에서 모든 교우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한 덕분에 가능했다.

1500여명이나 되는 사회 각층의 동문이 종횡으로 엮어 시너지를 창출하기 때문. 기업인, 언론, 학계 등 풍성하게 연결된 인맥은 서로에게 가장 큰 수확이다.

지난 10년간 ICP를 거친 교우들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씽크빅 대표이사 회장, 이부영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 김동신 전 국방장관,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허운나 한국정보통신대학원 총장, 행형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으로 명실상부 모교 최고 엘리트 교우들의 산실이 되고 있다.

좋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

교우회 산하 안암사회봉사단 7월 중 활동 보고

▲ 봉사활동 장소 :
서울시립 수락산 노인요양원 · 서울시립 성북 노인복지관 · 노틀담 방과후교실

▲ 참석자 :

김민숙 I (일반)	김민숙 II(일반)
김상국(법학85)	김원애(체교73)
김정숙(일반)	나옥자(69경영)
신상호(경제71)	안순희(일반)
여정화(생물83)	이경진(사회79)
이상옥(심리66)	이진숙(일반)
조주현(미교94) 허윤정(일반)	한홍옥(심리69)

※사회봉사단 계좌번호 변경
국민은행 431801-01-071266(이상옥)

장우회 졸업생 고용 촉진 대회 9월 15일

장우회(회장=이영자 · 국문64)는 오는 9월 15일(금) 오후 6시 제2회 장애인졸업생 고용촉진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김덕규(정외61), 김충조(법학61), 박계동(정외72)교우의 격려사와 함께 정혜정(영문85), 이은우(기공90)교우의 장애인권선언으로 전진대회는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전진대회는 설희환(사회82 · 고용촉진부회장)교우의 "장애인졸업생 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졸업생들의 고용촉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안암, 서창 계학생들이 모두 함께하는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자기소개시간을 갖는다. 이후 감사장 수장자와의 기념촬영 이후 만찬이 이뤄진다.



한편, 장우회 후원은 국민은행 458701-04-058706(고대장애인교우회)로 1구좌에 월1만원의 후원회원과 월 5만원의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장우회 야외콘프의 건립추진에 강남교우회만 참여하고 있어, 더 많은 교우들의 관심이 촉구된다.

다가오는 교우행사

■ 경제인회 가을 나들이 겸 정기산행 9월 10일

모교 경제인회는 9월을 맞이해 가을 산행을 떠난다. 장소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가평군에 걸쳐 있는 축령산이다. 출발장소는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이며 출발 시간은 아침 8시이다. 회비는 가족당 2만원이다. (☎경제인회 사무처 02)923-0588)

■ 부산교우회 호산회 제45차 산행 9월 10일

부산교우회 호산회는 9월 10일(일) 대운산으로 제45차 산행을 떠난다. 집결지는 노포동 전철역 1번 출구 앞이며 집결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다. 회비는 1만원이며 중식과 물 등의 간식거리를 준비해 오면 된다. (☎이승희 총무 016-584-2211)

■ 제3회 경영대 '와인의 향기' 콘서트 9월 12일

제3회 경영대 와인의 향기 콘서트가 오는 9월 12일(화) 오후 5시 LG-포스코 경영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는 뉴질랜드 3중주단(New Zealand Trio)을 초청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는 교수와 학생들이 와인을 함께하며 서로간의 신뢰를 다지게 된다. (☎경영대 학사지원부 02)3290-1301)

■ 제7회 박종구 회장배 골프대회 9월 14일

고대 경제인회는 9월 14일(목) 가평군에 위치한 베네스트 C.C에서 제7회 박종구 회장배 고대경제인회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12시 31분 3개 팀이 동시 티업하며 그린피 및 캐디피를 지참하면 된다. 회식비와 시상품, 참가 기념품은 박종구 교우회장이 특별 협찬한다. (☎경제인회 사무처 02)923-0588)

■ Korea-MBA과정 추계 워크숍 9월 16일

모교 경영전문대학원 Korea-MBA과정 추계 워크숍이 9월 16일(토) 오후 4시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된다. Korea-MBA 재학생 및 교우회 회장이면 참석 가능하다. Korea-MBA 학생회 사무실로 사전 등록하면 된다. (☎양종건 총무부장 018-530-7185)

■ 정외과 원우산악회 정기모임 9월 16일

정외과 대학원생 출신들의 산악 모임 정외과 원우산악회가 9월 16일(토) 정기모임을 갖는다. 집결지는 모교 정경대이며 집결 시간은 오후 2시이다. (☎김철민 회장 019-345-9732)

■ 고경산악회 산행 9월 17일

경영대학원 교우회 산하 고경산악회는 9월 17일(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도명산에서 9월 산행을 개최한다. 당일 아침 7시 30분 종로2가 씨티은행 앞에서 출발하며 회비는 1인당 1만 5천원이다.
(☎유수종 총무이사 011-330-6622)

한국에서 창립 100년을 맞는 최초의 대학동창회!

고대 교우회 창립 100주년 특별전 자료를 찾습니다!

1. 다가오는 2007년은 고대 교우회가 대망의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고대는 교수, 학생, 교육·연구시설을 모두 갖춘, 근대적 의미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교우회는 모교 개교 2년만에 창립하여 모교 건학이념의 구현체로써, 모교 존재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 이러한 자랑스런 교우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전시회를 고려대학교와 고대교우회, 그리고 고려박물관 주관으로 2007년 3월부터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고대교우회 창립 100주년기념 특별전은 1907년 3월 고대교우회 출범 이래 2007년까지 지난 100년의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고대인의 역사적 교훈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高麗大學校校友會 고려대학교

자료 수집처 및 문의

- 고대교우회 사무처 : 과장 이동원
  - 전화 : 02-921-2591, 팩스 : 02-921-2590
- 고려대학교박물관 기록자료실 : 과장 김상덕, 담당 박서영
  - 전화 : 02-3290-1009, 팩스 : 02-921-2616

	수집 대상 자료
문서자료	공문서, 회의록, 일지 증서류-졸업증서, 사령장, 신분증 등 합격증, 학생증, 성적표, 등록금 영수증 등 학사 관련 문서
간행물	연구 관련 - 학위논문, 연구논문, 학회지, 연구소 간행물 등 교육 관련 - 강의시간표, 강의계획서, 강의노트, 교무수첩, 입시요강 등 행사 관련 - 리플렛, 포스터 등 각종 안내물 정기간행물 - 뉴스레터, 회보 등 도서류 - 졸업앨범, 교우명부, 택서, 연보, 평가보고서 등
시청각자료	사진류 - 학교 전경, 행사 등의 사진과 필름 녹음류 - 주요 행사, 강의 녹음 테이프, 음반, CD 등 동영상 - 비디오 테이프, CD/DVD 등
물품자료	기(旗) - 단과대학, 각 학과 기념품 - 뱃지, 패넌트, 기념패 등 / 상장류 - 상패, 훈장 실험기자재및 장비, 등사기, 타자기, 컴퓨터 복식류 - 교복, 교모, 교련복, 기방
인물자료	육필 원고, 일기류, 휘호, 애장품, 물품류
학생활동자료	학생운동 관련 유인물, 팜플렛, 포스터, 동아리써클관련 자료
교외자료	연구 및 사회 활동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 - 연구사료, 현대사 기록 등

다가오는 교우행사

■ 요산회 36차 정기산행 9월 17일
경계학과 70학번 동기들의 등산 모임인 요산회는 9월 17일(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청계산으로 36차 정기 산행을 떠난다. 집합장소는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 5번 출구 앞 공원 등나무 벤치이며 집합시간은 오전 10시이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진경범 총무 011-9785-2437)

■ 경영64 골프회 9월 모임 9월 19일
경영학과 64학번 동기들의 골프 모임인 경영64골프회는 9월19일(화) 양지골프장에서 9월 골프 모임을 갖는다. 티오프는 오전 7시 7분이다. 경영64교우들은 9월 모임을 통해 교우들 간의 단합을 과시하고 골프실력까지 늘어날 것으로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규 총무 011-9937-4322)

■ 여자교우회 월례회의 9월 21일
여자교우회에서는 9월 21일(목) 오전 12시 여자교우회 사무실(교우회관 305호)에서 월례회의를 갖는다. 또한 각 현안에 대한 회의와 함께 고대 여성들의 능력과 실력을 개발하기 위한 고민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또교 여자교우들의 단합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화자 총무 011-9243-2229)

■ 강서양천교우회 3차 정기 모임 9월 25일
강서양천교우회는 9월 25일(월) 오후 7시 이계원(경제75) 교우가 운영하는 남한산성 왕갈비에서 2006. 제3차 정기 교우회 모임을 갖는다. 모임에서는 부동산써브 대표인 황동현(경영85) 교우가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한 강연회도 진행한다. 참가비는 3만원이나,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다.(☎강서양천교우회 02)2692-1311)

■ 제97회 고경아카데미 9월 27일
경영대학원 교우회 주최 제97회 고경아케데미가 9월 27일(수) 아침 7시 교우회관 대강당에서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초청 '세계통상환경 변화와 FTA'를 주제로 개최된다. 관심있는 교우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회비는 1만5천원이다.
(☎경영대학원교우회 사무처 02)921-0777)

■ 통일산악회 정기산행 9월 30일
통일산악회는 9월 30일(토) 오전 9시 30분 관악산입구 광장에서 모여 관악산을 등반한다. 모교 출신 교우라면 누구라도 환영하며, 이날 모임을 통해 더욱 끈끈한 교우들의 단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관악산 입구 광장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 서울대방향 버스를 이용, 서울대 정문서 하차하면 도착가능하다.(☎김경훈 간사 011-671-2586)

서창 종합운동장 준공식 12일

서창비전 선포 기념 및 운동장 준공 … KBS 열린음악회 열려

오는 12일 오후 3시 모교 서창캠퍼스 종합운동장 준공식이 열린다. 또한 같은 날 7시 30분부터 서창캠퍼스 중앙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Best Boarding Campus'라는 서창캠퍼스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시대 미래 중심대학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열린 'Best Boarding Campus' 비전 선포식

특히 이번 열린 음악회는 지난 4월 선포한 서창캠퍼스 비전 2010+를 기념해 열리는 것이다. 서창캠퍼스 비전 2010+는 세계 초일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행정전문대학원 설립과 경영정보대학원 이전 등을 추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의생명공학연구소를 설립,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과 의료 기술(Medical Technology)을 통합하는 'Bio-Medical Com-plex'를 조성, 아산의 삼성탕정기업도시와도 연계해 기업과 함께 정보통신공학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학생 전원이 4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지·덕·체를 배우는 '베스트 보딩 캠퍼스(Best Boarding Campus : 기숙캠퍼스)'도 구축키로 했다. 특히, 기숙사 전체를 포함해 '영어존(English Zone)'을 만들어 영어로만 사용하는 영어 공용캠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창캠퍼스 종합 운동장은 서창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19억 원을 들여 과학기술대 뒤편 공터에 약 9000평 규모로 지어진다. △축구장 △육상트랙 △농구장 3개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정경대 교우명부 발행



정경대 교우회(회장-천신일·정외61)는 2006년 2월까지 졸업한 교우현황을 과학핵 수록한 『校友名簿 2006』을 발행했다. 이번 교우명단은 시대흐름에 맞춰 역대 최초로 E-mail을 파악했으며, 기존의 직종별 분류외에 직업별 분류를 신설했다.

이로써 교우상호간 다양한 연락체계가 가능토록 했다. 교우명부에는 성명과 직장명과 직장주소, 이메일 등이 포함돼 있다.

고목회 조찬기도회 개최



제3회 모교 조찬기도회가 9월 7일(목) 오전 7시 30분 교우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이명박(경영61) 전 서울시장이 참석, 축사를 통해 자리를 빛내줬다. 이날 기도회는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설교를 통해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마쳤다. 한국사회의 영적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교우들이 민족과 대가 세계 속의 고대가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고목회는 모교 출신 기독교인 1천6백명으로 조직돼 있다.

바로잡습니다
지난호(433호) 에 보도된 제2회 조찬기도에는 서울시 전·현직시장이 참석하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총장초청 66학번 입학 40주년 기념 모교방문

모교에서는 입학 40주년을 맞이하는 66학번 교우님들을 부부동반으로 모시고 「총장초청 입학 40주년 모교방문」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본 행사에 부디 참석하시어 감회가 어린 교정을 돌아보며 학창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고
모교의 최근 발전상을 보시면서 반가운 학우 및 은사님들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6년 9월 28일(목) 오후 6시
■ 장 소 : 고려대학교 타이거돔 (녹지캠퍼스 내 화정체육관)

■ 식전행사 (16:00~18:00)
- 캠퍼스 버스투어
  - 본관 인촌동상앞 출발
  (16:00, 16:15, 16:30, 16:45, 17:00)
- 특별사진전
- 기념사진 촬영

■ 공식행사 17:30 ~ 18:30
① 교우님께서는 화정체육관 앞 접수대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차량은 중앙광장 지하주차장에 주차후에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주차권은 접수시 배부)
③ 셔틀버스
- 운행 운행구간: 본관 인촌동상앞 ⇔ 화정체육관
- 운행시간: 16:00~19:00, 20:00~22:00 (15분 간격 운행)

고려대학교 ※문의 : 고려대학교 대외협력부(02-953-2105)

호림박물관 분관 설립

윤장섭 교우 후원… 국내 사립박물관 중에 최대 박물관



성보실업 회장 호림 윤장섭(37상학)교우가 출연해 1981년에 세워진 호림박물관이 99년 5월에 관악구 신림동 지금의 자리로 확장, 이전한지 7년 만에 분관을 건립한다. 윤 교우는 우리 문화재의 해외유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문화재 후원인이 된다. 일본에 유출된 고려시대 사경(寫經) '백지묵서묘법연화경'(국보 211호)을 들여오고, '백자청화매죽문호'(국보 222호)를 기꺼이 구입했다. 그리곤 역사유물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며 박물관을 통해 공개한 것이 호림박물관이다.

새로 건립되는 분관은 강남을 대표하는 명물 중 하나였던 중국 음식점 '만리장성'에 자리한다. 국내 3대 사립박물관 중 하나인 호림박물관 운영주체인 성보문화재단(이사장=윤장섭)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대로 인근 만리장성이 입주해 있던 대지 970평에 호림박물관 분관을 건립키로 하고, 2월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28일(월) 밝혔다. 2008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는 분관은 연건평 400평 규모의 6층짜리 건물로 개관한지 20여년이 지난 호림박물관이 재단 설립자인 윤장섭 교우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소장품 1만건을 상회하는 박물관으로 우뚝 섰다.

국문과 62학번 교우회 모임



국문과 62학번 교우회(회장=김수해)는 지난 7일(월) 영등포역 소재 '갯벌낙지'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졸업 후 40여년 만에 처음 참석한 울산 거주 이상욱 교우를 비롯해 특별초대로 영문과 서대남 총무 등 12명이 참가해, 한여름밤의 열기와 함께 더욱 뜨거운 우정과 단합을 다졌다. 1971년 이후 36년 동안 변함없이 연간 4회의 모임을 가져온 국문과 62학번 교우회는 올해부터 격월로 모임 횟수를 늘리고, 국문과 창설 60주년과 국문과 교우회 창립20주년 행사에도 더많이 참석과 찬조를 하기로 결의했다.

68학번 교우회 임원회의 개최



68학번 교우회(회장=이강봉·기계)는 지난 22일(화) 68학번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한정식집 오미가에 열린 임원회의는 이날 저녁7시부터 전임 회장단 및 자문위원을 비롯해 각 단과대학 대표, 위촉진 부회장과 각과 대표들이 참석했다.

특히 김성호(법학68)교우의 법무장관 임명과 관련 축하의 자리를 함께할 교우들이 참석해 그 의미가 남달랐다. 회의는 김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축하와 재학생과 함께하는 고연전의 밤 준비에 대한 안건으로 이뤄졌다. 고연전의 밤 준비에 있어 장소와 예상경비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11월 중 새만금지역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문과대 8090교우회 8월 정기 산행



문과대학 8090교우회(회장=김영춘·영문81)는 지난 26일(토) 정기모임을 청계산에서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김영춘 교우가 건강과 친목을 다진다는 취지로 모임을 주관했다. 또한 하산이후의 행사는 학교에서 계속됐다. 당일 모임으로 교우들은 재학시절을 생각하며 꿈과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문과대학이 설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에 결성된 문과대 8090교우회는 정기모임에서 더욱 많은 교우들의 참여와 함께 그 발전을 기원했다.

73학번 교우회 청계산 등산



73학번 교우회(회장=이영해·산공)는 지난 5일(토)과 9월 2일(토) 각각 서울 청계산에서 20여명의 교우가 참석한 가운데 등산을 했다. 73교우회는 그 동안 매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산에서 등산을 해 왔다. 오는 10월7일(토), 오후 2시에도 서울 청계산에서 등산을 할 예정으로 많은 교우들의 참석을 부탁했다. 교우들은 이날 청계산에서의 약 2시간여의 산행으로 더욱 돈독한 교우들 간의 정을 쌓을 수 있었다. 이들 73학번 교우들은 앞으로 산행으로 길러진 체력과 정신력으로 보다 큰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73산악회장·김국권 011-726-3696)

3·3동지회 광복 61주년 기념 산행

3·3동지회(회장=곽광택·사학59)는 광복 61주년 및 58주년 건국일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5일(화) 9시 30분에 정릉 청수장에서 모여 산행을 실시했다. 산행 이후 오후 1시 30분 경 제1휴게소에서 "나라사랑, 학교사항, 동지사랑을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실시한 후 하산했다. 이날 점심은 제로기획 대표인 박원회(사회79) 교우가 제공했다.

단순한 산행에서 머무르지 않고, 산행 도중에 국가와 모교, 교우들 간의 사랑을 다짐하는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해, 특별한 산행을 만들었다.

'76동기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76학번

입학30주년기념 모교방문축제

◆ 일 시 : 2006년 10월 14일 (토) 오후 4시 ~ 오후 9시

◆ 장 소 : 모교 본관 앞 잔디 광장 및 체육관

고려대학교76학번 입학30주년기념 모교 방문 축제준비위원회 위원장 권 오 을

집행위원장 이영재, 사무국장 윤상근, 기획국장 최영식, 여성국장 김인숙, 섭외분과 조일석,
재무분과 김형태, 조직분과 김영홍, 행사분과 심동일, 홍보분과 홍순석, 전략분과 백연수, 광주지부 김한배

법과代表 이영재, 경영代表 권순도, 무역代表 이용설, 국문代表 윤재민, 철학代表 김형태, 사학代表 김문규, 심리代表 현병오, 사회代表 송일준, 영문代表 홍순석, 독문代表 안정오, 불문代表 이근창, 중문代表 여경운, 노문代表 백연수, 농학代表 백형찬, 임학代表 윤 홍, 농화代表 최영식, 농경代表 윤남하, 원예代表 김선희, 축산代表 김영홍, 식공代表 김기련, 정외代表 박철규, 경제代表 김영욱, 통계代表 오세웅, 신방代表 황교율, 수학代表 김 건, 물리代表 김용택, 화학代表 정감진, 생물代表 김정선, 지질代表 이우현, 화공代表 김승욱, 토목代表 성재덕, 건축代表 이강원, 기계代表 김희석, 전기代表 김연중, 금속代表 이덕화, 산공代表 윤계덕, 전자代表 조일석, 재료代表 이승주, 교육代表 임진수, 체육代表 정윤택, 가정代表 최미선, 의예代表 박상은, 간호代表 하나선

고유회 전북 고창서 중고등학생 지원활동



고유회(회장=김기동 · 경영71)는 지난 8월 1, 2차에 거쳐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지역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전(임학65)교우의 제안과 유성호(국교97)교우의 공지로 진행된 봉사활동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감안해 이뤄졌다. 박기전 교우는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일익을 하고자 교회 안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고유회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힘을 모은 것이다. 지난 6일(일)부터 12일까지 1차, 이후 13일(일)부터 19일까지 2차로 파견된 고유회 회원들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해당 지역의 면장과 지역 주민들이 이 모습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백 교우의 낙원교회를 찾아 모교의 이미지를 한껏 고양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편, 고유회는 모교 유도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모임으로 지덕체를 겸비하는 교우회로 성장하고 있다.

고양시교우회 소요산 정기산행



고양시 교우회는 지난 6월 25일(일)에 소요산에서 산행을 실시했다. 자세암과 하백운대, 상백운대 코스를 통해 3시간여동안 산행을 했다. 참석자들은 김판치(수학59 · 한빛 세무사), 박종철(물리72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백성운(행정73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배유현(경영76 · 산업전시협회장), 황인규(재료79 · KCC 부장), 최종렬(체교79 · 헷님개발 대표이사), 김병진(사회80 · 경희대 겸임교수), 민경진(금속80 · 유니트라 대표이사), 장운기(법학81 · 법무법인 청산 변호사), 이범(의학82 · 이가정의학과의원 원장), 김원식(경제83 · 기아차 과장), 전문우(법학87 · 법무법인 일산 변호사), 문상곤(사회87 · 석우에드 실장) 교우 등이 참석했다.

미주 의과대 교우회 홈페이지 개설

미주 지역 의과대학 출신 온 · 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완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umsaa.org

모교 미주 지역 의과대학 교우회(회장=유강윤 · 의학64)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뉴욕, LA, 시카고, 미시간, 필라델피아, 워싱톤 등 대 도시나 각주에 지역 교우회와 그리고 동기별 교우들의 모임을 웹상에서 하나로 이어주는 네트워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서 미주지역 의과대학 교우회 장학회를 설립해 모교에서 연구차 오는 교우들에게 장학금(일년에 $12,000)을 후원하며 의과대학 학생에게도 한 학기 등록금 전액($5,000)을 장학금으로 보조해 온 미주 지역 의과대학 교우회의 활동이 보다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역동창회 간에 보다 더 긴밀한 연락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며 교우들 간의 친목 도모와 함께, 모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모교 의과대는 현재까지 미국에 약 500명 이상의 동문들이 의업에 종사하고 있다. 미주지역 동창회는 1979년 뉴욕에서 발족을 했으며 초대 회장인 문명선(의학48)교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작해서 현재 14대 회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매년 미주지역 총 동창회를 열어 학술발표를 통해 의학발전은 물론 동문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 · 오프라인의 교우 단합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교우회다.

이 기회로 미주 지역 의과대학 출신들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한국 과학인 톱10 생명과학부백경희 교수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선정하는 "귀감이 될 과학기술인 톱10"에 모교 생명과학부 백경희 교수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인 톱은 과학 기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과학기술인 가운데 최근의 업적 등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귀감이 될 만한 과학기술인을 선정한다. 백 교수는 학술연구 부문에서 그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문과대학 교우회보 『시계탑』 ROTC교우회보 · 65동기소식지 발행



좌측부터 시계탑, ROTC교우회보, 65동기소식지

지난 7월과 8월에 『ROTC교우회보』, 『65동기소식지』가 각각 발행됐다. 이어 9월 1일(금) 문과대학 교우회보 『시계탑』이 발행됐다.

각각의 회보는 소속 교우들의 네트워크 강화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계탑』의 경우 문과대학 설립 60주년 기념 특집호로 발행돼 문과대학의 60주년의 발자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큼 해준다. 『ROTC교우회보』에서는 2006년 송년행사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지난 5월에 개최된 무호가족 등반대회에 대한 기사가 1면에 게재됐다. 『65동기소식지』는 지난 4월에 열린 65동기의날 행사를 중심으로 동기별 동정과 함께, 사를모임 소식을 전하고 있다.

교우님의 열렬한 고대사랑에 감사드립니다

ARS를 통한 모교발전기금 기탁자 등 소액기부교우님들께

교우님들의 모교와 교우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제 금액의 다소에 따라 변하겠습니까?
2006년 8월 31일 현재 ARS를 통한 모교발전기금
기탁건수가 41,996통(1통화당 5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여러가지 경로로 성함을 밝히지 않은
많은 무명의 교우님들께서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모교와 교우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면서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정성을
결코 잊지 않고 고대의 가슴 속에
영원히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高麗大學校 · 高麗大學校校友會

※개교 100주년기념사업기금을 기부하여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교동 유정낙지

생각만 해도 군침이 솔솔~

"한국을 대표하는
매운맛의 대명사,
낙지볶음의 진수를
보여 드립니다"



메 뉴

• 낙지볶음 • 낙지전골 •
• 조 개 탕 • 낙지파전 •
• 산 낙 지 • 연포낙지 •

■ 교우운영 업소 ■

• 분당점:031-702-6117 • 회장점:031-938-2224
• 서초점:02-3482-4097 • 방이점:02-414-4615 • 신사점:02-547-5800
• 일산점:031-906-8363 • 압구정점:02-3443-2023 • 삼성점:02-539-8826

"한국 고유의 명품 MBA과정 만든다"

신입생 미국 뉴욕대 · 조지워싱턴대 · 캘리포니아대 등 해외 명문대 출신 다수



모교 경영전문대학원은 2005년 8월 경영학 분야의 세계적 인증기구인 AACSB로부터 MBA 전분야를 인정받았다

모교 경영전문대학원(원장=장하성 교수 · 경영대 경영학과)과정이 이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존 경영대학원 체제가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바뀌면서 △Executive MBA △MIBA △KOREA MBA 외에 △글로벌 MBA △금융 MBA 과정이 신설돼 총 5가지 과정이 진행된다. 총 정원 290명인 본교 경영전문대학원 입학 경쟁률은 평균 4.3 : 1이였고, 학비는 1년 과정은 4천5백 만원, 2년 과정은 3천2백 만원이다. 최소 이수학점은 45학점이다.

지난해 8월 31일 경영학 분야의 세계적 인증기구인 AACSB로부터 MBA 전분야의 인증을 받은 모교 MBA는 대부분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 글로벌 MBA의 경우 100% 영강이고 입학생 63명 중 22명이 외국인이다. 미국의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조지 워싱턴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등 해외 명문대 출신이 많은 것이 이번 외국인 신입생들의 특징이다.

MBA과정은 기업인턴제 등을 통해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한다. 글로벌 MBA는 기업에서 위탁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해당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그 외의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해외기업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MBA는 학생 전원에게 2개월간 해외금융기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본교 MBA 과정은 주간과정이지만 KOREA MBA는 직장인 층을 고려하여 야간에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고 Executive MBA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전일을 이용해 수업한다.

국제적 MBA 과정을 만들기 위해 플로리다주립대학교(University of Florida) 및 캐나다요크대학교(York University) 등과 공동 학위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장하성 경영전문대학원장은 "한국 고유의 명품 MBA를 만들어 국내 기업 실정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아시아 경제에 맞는 MBA과정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외국인 학생들에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한국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 총장배 고교 농구대회 타이거돔서



지난달에 개관한 모교 타이거 돔(화정체육관)이 한국 농구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7일(목) 막을 올려 24일(목)까지 8일 동안 열전을 치렀던 제1회 고려대총장배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가 바로 그 무대. 1965년 시작해 올해로 42년 된 쌍용기 대회가 이번에 새롭게 변모한 것이다. 이 대회에는 남고부 14개 팀과 여고부 6개 팀이 출전해 고교 농구의 최강을 가렸다. 아울러 장차 한국 농구를 이끌 유망주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대회 마지막 날인 24일, 결승시합을 치뤄 올해 남고등부 우승은 제물포고와 여고등부 우승은 숙명여고가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상에는 제물포고의 오세근 군과 숙명여고의 임효진 양이 선정됐다.

장인덕 중고농구연맹회장은 폐막사를 통해 "어린 선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회를 성대하게 치르게 해준 고려대학교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모교 농구팀, 와세다팀 대파



모교 농구팀은 타이거돔 개관 기념으로 28일(월) 오후 3시 일본 와세다대와 농구 친선 경기를 했다.

이날 경기에는 모교 어윤대 총장, 와세다대 시라이 가즈히코 총장이 관전했다. 일본 와세다 대학과의 경기에서 모교는 양교 역사상 첫 친선농구경기에서 승리했다. 하계필(8득점)이 버틴 골밑의 우위를 앞세운 모교는 시종일관 전력의 우위를 보이며 경기를 쉽게 풀어나갔다.

차재영(18득점), 신제록(21득점) 등이 차곡차곡 득점을 보태 1쿼터를 28-20으로 앞서나간데 이어 2쿼터에서는 이영현(20득점)이 득점을 주도하며 53-43으로 전반을 마무리했다.

3쿼터에서는 신입생 포인트가드 김태주가 3쿼터에만 11득점을 올리며 팀을 이끌었다. 이후 모교는 선수들을 고루 기용하는 여유끝에 와세다 대학에 111-88으로 승리했다. 이날 행사는 양교의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Nobel LLS 자료집 발행



모교 100주년기념 노벨상 수상자 강연자료집(현대기아자동차 및 조선일보 후원)이 지난 7월에 출간됐다. 지난해 시리즈 강연은 재학생과 한국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고 OECD 국가로서의 선진화를 추구하며 국내 학술 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강연자료집은 지난해 강연자의 논문과 함께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당시 강연장의 분위기까지 스케치한 귀중한 자료집이 될 전망이다. 특히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의 내용은 학술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우단체 연합봉사 수해지역 봉사

교우여러분 및 일반인의 지속적인 후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 후원자 명단 ◀



차청훈 푸른종합건설 대표 | 유영철 부천대 교수 | 장영훈 푸른종합건설 이사 | 김종식 일꾼기획 대표 | 강두섭 교육69 · 사범대교우회장

▶ 봉사자 명단 ◀

이지수(심리66) 김경숙(심리66) 김길란(철학71) 김호대(경영73) 권용관(독문73)
전판수(법학77) 한문희(체교77) 황인남(체교77) 김미은(가교78) 신범석(교육84)
전선희(생물84) 성중기(경영71) 박승혜(강남교우회 명예회원)

문과대 · 사범대 교우회 · 강남지부 · 광진지부

교우회관 공실 안내

● 종로회관 ●

3층 : 305호 (평수 : 14평)
306호 (평수 : 9평)

5층 : 502호 (평수 : 10평)

6층 : 604호 (평수 : 10평)
606호 (평수 : 26평)

7층 : 701호 (평수 : 10평)

담당 : 박상욱 ☎921-2591

E-mail : spring@kuaa.or.kr

오목가슴 수술은 고대가 세계 최고!

모교 안산병원 박형주 교수 세계 최고 · 최다 수술기록보유, 의료진 감탄

전국 각지의 흉부외과 의사들이 오목가슴 수술을 배우기 위해 모교 안산병원에 모였다. 이는 오목가슴의 세계적 대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모교 안산병원 오목가슴클리닉 박형주(의학76) 교수가 지난 3일(목)과 4일 양일간 모교 안산병원 수술실과 소강당에서 '제6회 오목가슴 수술 워크샵'을 개최했기에 가능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서 비대칭형과 대칭형 등 형태별로 다른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오목가슴에 대한 독창적인 교정술을 박 교수가 직접 시연했다. 사실상 오목가슴분야로는 세계 유일의 공개시연인데 박 교수가 세계 최고의 기술과 최다 수술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이번 워크샵은 지난 2년 동안 대한과 포루투칼 의료진 수십 명과의 수술시연 및 토론을 통해 이미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었다.

박 교수는 그간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첨단 오목가슴 수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국내외 의료진과 공유하는 것이 한국이 오목가슴수술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시금석이라는 판단 하에 정기적인 국내 워크샵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이번 워크샵을 총괄했던 박형주 교수는 Donald Nuss의 최소 침습 수술법을 99년 국내 최초로 도입해 그동안 지적된 온 문제점들을 자신이 새롭게 개발한 기술로 해결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마워요! 고대 안산병원"

유방암 무료검진 실시 시민에게 큰 호응



모교 안산병원(원장=박영철 · 의학73)은 지난 10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원보건소(안산시 고잔동)에서 67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검사는 67명 모든 참가자에게 유방x레이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유방암 진단 전문의 모교 안산병원 진단방사선과 서보경 교수가 현장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방사선사가 x레이 촬영을 실시하는 등 '유방암 무료검진'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오후 5시까지 진행하기로 돼 있었으나 1시간 30분이나 초과된 6시 30분이 돼서야 검진이 마무리 되는 등 세심한 검사가 시종일관 진행됐다. 또한, 이날 검진에는 건강상담 등을 진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의료원과 USB가 함께 당뇨교육 개최



고대의료원 소아당뇨교실(담당교수 이기형)이 지난 9일(수) 오후 3시 모교 안산병원 소강당에서 「소아당뇨 환아와 부모를 위한 당뇨교육」을 실시했다. 세계적인 금융그룹 UBS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환아와 가족들에게 소아당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갖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아와 가족들이 만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당뇨교육에서는 ▲올바른 외식방법 ▲특별한 날의 혈당관리 ▲아동 및 청소년 집단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환우와 가족 위한 가야금 연주회



안산병원은 지난 18일(금) 오후 4시 30분 대강당에서 '환우와 보호자를 위한 가야금 연주회'를 개최했다. 환자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교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희 씨의 가야금 연주를 감상고, 국악 '술'을 관객과 열창하는 등 시종 뜨거운 열기 속에 연주회가 진행됐다.

공연 시작 전 이상우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병원에서 견뎌주시는 환자 및 보호자 등과 함께 듣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흥취를 돋우는 오늘 연주회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떠나 마음의 안정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일과 손잡고 차세대 인공심장 개발

모교 한국인공장기센터(소장=선경 · 의학75 · 안암병원 흉부외과)는 독일 베를린하트사와 차세대 인공심장 개발 협약을 맺었다고 27일(일) 밝혔다. 선경 소장은 "인공심장의 기반기술인 펌프(엔진)는 국내 개발 기술을 적용하고 주변기기인 제어기나 배터리 등은 베를린하트사로부터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2002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인공심장 연구개발 센터인 한국인공장기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휴대형 인공심장을 개발, 전임상 연구 단계에 있다.

모교캠퍼스는 지금



새 학기, 책을 고르는 마음으로 시작하다

지금 모교에는 새학기를 맞아 재학생들이 전공서적에 푹 빠져있다. 어느 '신세대' 못지않은 재학생이 자신의 꿈을 그리듯 책 속에 심취해 있는 모습이 복적 거리는 교내 서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진/글 노승환 기자)

고맙이 (35)



월례강좌 공고 (제 261회)

▲ 일시 : 2006년 9월 28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고대 교우회관 대강당 (안암홀)

▲ 연사 : 洪裕秀 재테크코리아 회장

▲ 연제 : 「노후 설계와 재테크 방향」

※회비납부계좌 : 하나은행 391-810088-67407 (예금주 : 고대강좌)

※ 강연 후 오찬 및 림톤사물놀이가 있습니다.

※ 회원확인은 문화구락부회원 집권행사가 있습니다.

主催: 月例講座運營委員會
後援: 高麗大學校校友會

성북구 가정건강지원 센터 소식지 발행



모교와 함께 하는 성북구 가정지원센터 8월 소식지가 발행됐다. 7월 한 달 동안의 교육 프로그램과 센터 이용후기가 게재됐으며, 8월 프로그램이 안내돼 있다. 정보마당과 센터이용안내가 나온 8월 소식지는 특히 어린 자녀를 위한 경제서적 안내가 이채롭다. 소식지 신청은 3290-1660으로 하면 된다.

本報辭令
任 기 자 최형락(국문99)
김보람(언어03)
免 기 자 이승재(심리01)
(8月 16日字)

한국 10대 박물관 안에 드는 대학 최고 박물관



고대 박물관의 역사에 대해 말하는 윤세영(사학55)교우

교우회 100년, 남기고 싶은 이야기 〈7〉

고대 박물관

1. 자료, 공간, 사람 그리고 참여

고려대학교가 한국 근대 고등교육기관의 효시이듯이 고려대학교의 부속기관들 역시 한국 최초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 많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역시 한국 대학박물관으로서는 최초인 1934년에 설립되었다. 6. 25동란 중에 수집 자료 상당수가 훼손되었지만 1950년대 기증자들이 줄을 잇고 대학 관계자들이 노력하여 1962년에는 독립 건물을 갖게 되었다. 10만여점의 소장 물품 역시 대학박물관 최대라고 할 수 있으며, 국보 3점을 비롯해 그 질적 가치도 상당히 높은 소장품이 많다. 모교 졸업 직후인 1959년 4월 학예원을 시작으로 2000년 관장으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40여년을 고대박물관과 인연을 맺어온 윤세영(사학55)교우는 먼저 박물관 운영의 4대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박물관 운영의 3대 요소로 자료, 공간, 사람을 들어요. 자료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고, 공간이란 소장하고 전시할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은 자료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시할 학예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관람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대박물관은 1930년대 보전교수로 재직했던 역사학자 손진태가 일제강점기 아래 유실되어 가던 우리 민속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에서 태동하였다. 이후 고대박물관은 대학박물관 최초로 1959년 웅천패총을 발굴한 것을 비롯해 직접 고고, 역사 유물을 수집하였고, 고미술은 물론 근현대 미술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대학 부속기관으로 박물관을 설치하고 독립건물에서 수집과 연구와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후원한 대학 운영자들의 안목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말하자면, 자료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박물관 자료로 수집하고, 보관하고, 전시할 능력을 갖춘 사람과 공간이 고려대학교에 있었다는 것이다. 박물관 운영의 현대적 요소인 관람객 참여의 문화도 고대박물관이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대학에 따라선 물건은 있지만 전시할 공간이 없거나, 전시할 공간은 마련해 뒀지만 뭐 이렇다할 물건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둘 다 갖춘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처럼 민속품과 역사 유물, 고서화와 도자기와 같은 고미술품에서부터 근현대미술작품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는 대학은 드물 겁니다."

2. 민중 생활의 숨결이 살아있는 민속품들

6.25동란의 여파로 상당수 자료를 잃어버린 1950년대 후반 고대박물관 재건의 계기가 된 것은 신창재, 박재표 두 사람의 기증품들이었다. 고미술 수집가였던 두 사람은 현재 가치로로 상당액에 달하는 규모의 1급 서화, 도자기들을 고대박물관에 기증하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학교측에 독립된 박물관 건물을 지을 것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여러 기증자들이 줄을 이었다.

"박물관 운영의 제1요소라고 할 수 있는 물건 수집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고, 기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묻혀 있는 자료를 발굴하거나 동식물 채집처럼 채집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훔치거나 강탈하기도 하지요. 세계 4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물건 상당수는 강탈한 것이지요. 독립된 박물관 건물이 생길 무렵부터 우리는 물건을 기증 받는 것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해 직접 수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무렵 모교 사학과와 서울대 고고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류고고회'라는 학회를 만들어 경기도 명일리, 미사리, 가락리 일대를 돌며 선사시대 유물을 모았다. 빈손으로 경기여객 버스를 타고 가서는 한 점씩 짊어지고 돌아왔다. 돌도끼 같은 석기류와 철기, 토기 등의 유물을 모아 선사유물전시실을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이 진행되면서 초가집 개량을 비롯해 민속생활품들이 한꺼번에 쓰레기로 버려졌다. 윤 교우는 새마을운동 전개되는 3년 동안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전국을 돌면서 버려지는 민속자료들을 모았다. 직원들을 데리고 가 새마을운동이 막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는 마을에 한달씩 머물면서 도리깨, 두레, 호미 등 4,5천점씩 싣고 왔다. 각 물건마다 수집 장소와 연도, 사용자 이름까지 꼼꼼히 기록하였다. 이런 이유로 같은 호미일지라도 토양에 따라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호미가 모두 그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모조품을 수집해놓은 여느 박물관의 민속품에 비교하면 그 민속학적 가치가 훨씬 높다고 하겠다. 민중생활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자료들인 것이다.

"한번은 산대놀이로 유명한 양주 어느 마을에서 창고의 가면을 버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조상들이 쓰던 물건이지만 더 이상 놀이를 하지 않게 되니까 버린다는 거죠. 바로 달려가서 마을 이장하고 잘 교섭을 끝내고 며칠 후 받으러 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막상 가면을 받으러 갔을 땐 크게 실망했어요. 이분들이 서울 가는 물건이라고 깨끗이 청소를 해놓은 거예요. 산대놀이하던 사람들의 흔적과 손때가 다 지워져버린 거죠."

반강압적으로 가져온 자료도 있다. 1970년무렵 모교 이공대 뒤편 공사장에서 15세기경에 제작된 조선왕가의 태항아리가 발견되었다. 두 개가 나왔는데 먼저 나온 것은 건설회사 사장이 가져갔다는 이야길 들었다. 윤 교우는 돼지 두 마리를 잡아 막걸리와 함께 현장인부들에게 돌리고 태항아리를 학교로 가져왔다.

"곧장 사장이 찾아와 항아리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도 독한 마음을 먹고 이건 국가재산이니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그 사장이 찾아와 자기가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하자는 협상을 하더군요."

그렇게 고대박물관 소장품이 된 이 태항아리가 국보 제177호로 지정된 粉靑沙器印花文胎壺이다. 15세기 인화문 분청사기 중 가장 세련된 작품으로 꼽힌다.

3. 대학박물관 최초 현대미술관과 해외전시

1973년 고대박물관은 대학박물관으로는 최초로 한국 현대 미술실을 개설한다. 주로 민속품 위주로 수집하다가 고서화, 도자기 등으로 영역을 넓혀왔지만 현대화까지 수집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졌다. 현대작품의 가치를 가늠할 안목이 요구되는데 고대엔 미술대학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현대작품이라고 하더라도 50년 지나면 근대화이고, 100년 지나면 고화에 속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을 해나갈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작품을 안준다면 몰라도 만약 주기로 했으면 한국 작가 누구나 고려대학교에 자신의 일급 작품을 주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미대도 없는 대학에는 자신의 작품을 주지 않겠다고 한 작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은 작품을 내놓았다. 기증 받기도 하고 빌리기도 해서 현대 미술실을 개설하자 미술대학이 있는 대학들보다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미술 작품 수집과 관련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한다.

현대화단의 대작가 이응로는 1960년대말 이른바 동백림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다. 이 무렵 이응로의 그림은 국내에서 전



100주년 기념 삼성관에 위치한 모교 박물관은 현대화된 시설로 일반인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박물관 운영의 3대 요소
자료, 공간, 사람
자료는 역사적인 물품
공간은 전시할 장소
사람은 학예원을 의미"

"'인류 고고학' 학회
경기도 일대 선사시대
유물 모아
지금의 선사유물
전시실 만들어"

한국 10대 박물관 안에 드는 대학 최고 박물관



고대 박물관의 역사에 대해 말하는 윤세영(사학55)교우

교우회 100년, 남기고 싶은 이야기 〈7〉

고대 박물관

1. 자료, 공간, 사람 그리고 참여

고려대학교가 한국 근대 고등교육기관의 효시이듯이 고려대학교의 부속기관들 역시 한국 최초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 많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역시 한국 대학박물관으로서는 최초인 1934년에 설립되었다. 6. 25동란 중에 수집 자료 상당수가 훼손되었지만 1950년대 기증자들이 줄을 잇고 대학 관계자들이 노력하여 1962년에는 독립 건물을 갖게 되었다. 10만여점의 소장 물품 역시 대학박물관 최대라고 할 수 있으며, 국보 3점을 비롯해 그 질적 가치도 상당히 높은 소장품이 많다. 모교 졸업 직후인 1959년 4월 학예원을 시작으로 2000년 관장으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40여년을 고대박물관과 인연을 맺어온 윤세영(사학55)교우는 먼저 박물관 운영의 4대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박물관 운영의 3대 요소로 자료, 공간, 사람을 들어요. 자료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고, 공간이란 소장하고 전시할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은 자료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시할 학예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관람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대박물관은 1930년대 보전교수로 재직했던 역사학자 손진태가 일제강점기 아래 유실되어 가던 우리 민속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에서 태동하였다. 이후 고대박물관은 대학박물관 최초로 1959년 웅천패총을 발굴한 것을 비롯해 직접 고고, 역사 유물을 수집하였고, 고미술은 물론 근현대 미술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대학 부속기관으로 박물관을 설치하고 독립건물에서 수집과 연구와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후원한 대학 운영자들의 안목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말하자면, 자료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박물관 자료로 수집하고, 보관하고, 전시할 능력을 갖춘 사람과 공간이 고려대학교에 있었다는 것이다. 박물관 운영의 현대적 요소인 관람객 참여의 문화도 고대박물관이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대학에 따라선 물건은 있지만 전시할 공간이 없거나, 전시할 공간은 마련해 뒀지만 뭐 이렇다할 물건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둘 다 갖춘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처럼 민속품과 역사 유물, 고서화와 도자기와 같은 고미술품에서부터 근현대미술작품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는 대학은 드물 겁니다."

2. 민중 생활의 숨결이 살아있는 민속품들

6.25동란의 여파로 상당수 자료를 잃어버린 1950년대 후반 고대박물관 재건의 계기가 된 것은 신창재, 박재표 두 사람의 기증품들이었다. 고미술 수집가였던 두 사람은 현재 가치로로 상당액에 달하는 규모의 1급 서화, 도자기들을 고대박물관에 기증하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학교측에 독립된 박물관 건물을 지을 것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여러 기증자들이 줄을 이었다.

"박물관 운영의 제1요소라고 할 수 있는 물건 수집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고, 기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묻혀 있는 자료를 발굴하거나 동식물 채집처럼 채집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훔치거나 강탈하기도 하지요. 세계 4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물건 상당수는 강탈한 것이지요. 독립된 박물관 건물이 생길 무렵부터 우리는 물건을 기증 받는 것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해 직접 수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무렵 모교 사학과와 서울대 고고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류고고회'라는 학회를 만들어 경기도 명일리, 미사리, 가락리 일대를 돌며 선사시대 유물을 모았다. 빈손으로 경기여객 버스를 타고 가서는 한 점씩 짊어지고 돌아왔다. 돌도끼 같은 석기류와 철기, 토기 등의 유물을 모아 선사유물전시실을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이 진행되면서 초가집 개량을 비롯해 민속생활품들이 한꺼번에 쓰레기로 버려졌다. 윤 교우는 새마을운동 전개되는 3년 동안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전국을 돌면서 버려지는 민속자료들을 모았다. 직원들을 데리고 가 새마을운동이 막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는 마을에 한달씩 머물면서 도리깨, 두레, 호미 등 4,5천점씩 싣고 왔다. 각 물건마다 수집 장소와 연도, 사용자 이름까지 꼼꼼히 기록하였다. 이런 이유로 같은 호미일지라도 토양에 따라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호미가 모두 그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모조품을 수집해놓은 여느 박물관의 민속품에 비교하면 그 민속학적 가치가 훨씬 높다고 하겠다. 민중생활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자료들인 것이다.

"한번은 산대놀이로 유명한 양주 어느 마을에서 창고의 가면을 버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조상들이 쓰던 물건이지만 더 이상 놀이를 하지 않게 되니까 버린다는 거죠. 바로 달려가서 마을 이장하고 잘 교섭을 끝내고 며칠 후 받으러 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막상 가면을 받으러 갔을 땐 크게 실망했어요. 이분들이 서울 가는 물건이라고 깨끗이 청소를 해놓은 거예요. 산대놀이하던 사람들의 흔적과 손때가 다 지워져버린 거죠."

반강압적으로 가져온 자료도 있다. 1970년무렵 모교 이공대 뒤편 공사장에서 15세기경에 제작된 조선왕가의 태항아리가 발견되었다. 두 개가 나왔는데 먼저 나온 것은 건설회사 사장이 가져갔다는 이야길 들었다. 윤 교우는 돼지 두 마리를 잡아 막걸리와 함께 현장인부들에게 돌리고 태항아리를 학교로 가져왔다.

"곧장 사장이 찾아와 항아리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도 독한 마음을 먹고 이건 국가재산이니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그 사장이 찾아와 자기가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하자는 협상을 하더군요."

그렇게 고대박물관 소장품이 된 이 태항아리가 국보 제177호로 지정된 粉靑沙器印花文胎壺이다. 15세기 인화문 분청사기 중 가장 세련된 작품으로 꼽힌다.

3. 대학박물관 최초 현대미술관과 해외전시

1973년 고대박물관은 대학박물관으로는 최초로 한국 현대 미술실을 개설한다. 주로 민속품 위주로 수집하다가 고서화, 도자기 등으로 영역을 넓혀왔지만 현대화까지 수집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졌다. 현대작품의 가치를 가늠할 안목이 요구되는데 고대엔 미술대학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현대작품이라고 하더라도 50년 지나면 근대화이고, 100년 지나면 고화에 속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을 해나갈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작품을 안준다면 몰라도 만약 주기로 했으면 한국 작가 누구나 고려대학교에 자신의 일급 작품을 주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미대도 없는 대학에는 자신의 작품을 주지 않겠다고 한 작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은 작품을 내놓았다. 기증 받기도 하고 빌리기도 해서 현대 미술실을 개설하자 미술대학이 있는 대학들보다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미술 작품 수집과 관련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한다.

현대화단의 대작가 이응로는 1960년대말 이른바 동백림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다. 이 무렵 이응로의 그림은 국내에서 전



100주년 기념 삼성관에 위치한 모교 박물관은 현대화된 시설로 일반인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박물관 운영의 3대 요소
자료, 공간, 사람
자료는 역사적인 물품
공간은 전시할 장소
사람은 학예원을 의미"

"'인류 고고학' 학회
경기도 일대 선사시대
유물 모아
지금의 선사유물
전시실 만들어"

〈 Premier Search Solution
www.wisenut.co.kr



No.1 검색엔진

코리아와이즈넛

최고의 고객이 선택한 최강의 검색전문기업

손수 독자 기술력에 의한 국산 검색엔진
다수의 구축사례를 통한 기술력 안정성
고객지향적, 신속한 서비스 지원 체계
• 주요 솔루션 : 대용량 통합검색엔진 / 외부정보시스템 / 자료관 검색엔진
• 주요 서비스 : 검색광고 서비스 / 웹검색 서비스

(주)코리아와이즈넛 (137-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9-1 한국토지공사빌딩 6층
TEL : 02-3404. 6100 / FAX : 02-3404-6109 / webmaster@wisenut.co.kr

Korea WISEnut

창사 17주년을 맞아 고객님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989. 08. 26 화엄토건(주) 설립.
1989. 12. 01 토공사업 면허취득.
1992. 08. 3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
1996. 10. 31 국제품질규격 ISO9002 인증획득.
1998. 07. 16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2000. 12. 26 수중공사업 면허취득.
2001. 10. 21 포장공사업 면허취득
2002. 10. 2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00-1로 본사이전.
2003. 11. 08 ISO9002 → ISO9001:2000으로 변경취득.
2004. 12. 14 자본금 유상증자(총 불입자본금 13억원)
2006년 대림산업(주) 최우수협력업체 선정
2006년(주) 포스코건설 최우수협력업체 선정

당사는 건축물의 기초공사인 흙막이 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건축공사의 주춧돌이되어 지난 17년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창사 17주년을 맞이하여 화엄토건(주)의 전 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고객의 요구에 부응키 위해 성실한 시공, 안전한 공사, 완벽한 준공의 신념을 갖고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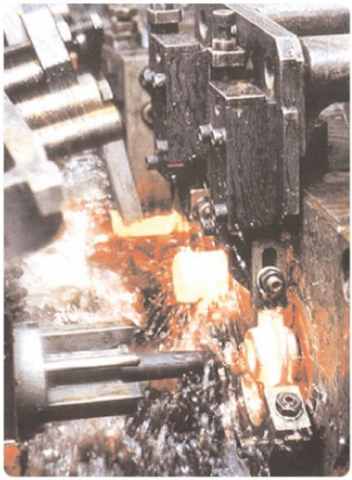
화엄토건은 앞으로도 건축공사의 핵심인 토공사 전문업체로써 맡은바 책임을 다할것이며, 21세기 초우량 전문건설업체로 도약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엄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병윤 외 임직원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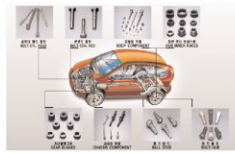
화엄토건 Hwaum Construction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100-1 성지빌딩 5층
Tel 02)420-6454, Fax 02)420-3978, http://www.hwaum.co.kr



www.oriensmetal.co.kr



자연과 기술 그리고
인류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Automobile Parts)

각종볼트, 차체용 부품, 기어블랭크류 엔진부품,
샤시용 부품, 스페셜 부품

당사는 자동차용 HARDWARE 생산을 위한 설계기술, 제조기술, 공정관리기술 및 품질관리 기술을 확보하여 생산제품을 르노삼성자동차에 납품하고 있으며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리엔스금속주식회사 ORIENS METAL CO. LTD.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878-2 Tel(교환):051)721-2911(#7431-7439)
Tel(직통):051)721-4161, 721-8441 Fax:051)721-1861, 722-3459, http://www.oriensmetal.co.kr

www.benefitshop.co.kr

일 잘하는 사람들의 휴식처
베네피트샵



'쉬는 법을 알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베네피트샵은 기업의 복리후생 컨설팅에서 제도 설계, 위탁 운영,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복지 토탈 아웃소싱 브랜드입니다.
건강/ 여행/ 교육/ 문화/ 쇼핑/ 육아 보육서비스로 기업에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직원에게는 최적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우리를 선택한 고객사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기상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충남도청
경남도청, 강원도청, 제주도청, 수원시청, 의왕시청, 보령시청, 양산시청, 제주시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기술표준원, 외교안보 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포스데이타 등

콜센터 031-779-9222
Benefit shop | Korea's Energy Lifeline 대한송유관공사

"언론사 경영에 영혼이 있는 승부가 시작된다"

삭막한 경영전선의 선봉장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온화해 보이는 외모의 소유자 노진환 사장은 그 외모만큼이나 따뜻하고 겸손한 성격이었다. 노진환 사장은 1971년 한국일보 건습기자로 시작해 한국일보 주필까지, 35년간의 신문사 기자라는 직함을 겸고 정치, 외교 부문의 전문가가 됐다. 그 온화한 외모는 천상 언론인 또는 성직자에 가까웠다. 서울신문 사옥 6층 사장실에서 진행된 그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언론인에서 언론을 경영하는 경영자로 돌아온 노 사장이 지우는 온화한 미소는 "영혼이 있는 승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담은 서울신문 사장실에서 김용태(사회77 • 메트로 편집국장)본지 편집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초대석

서울신문 사장

노진환 (정외65) 교우



▲ 한국언론재단 운영위원
▲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 증근당 사외이사
▲ 한국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 한국일보 주필
▲ 통일부 정책평가위원
▲ 서울신문 사장

김용태 : 서울신문이라는 큰 살림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언론인에서 경영자로서 대변신하게 되셨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노진환 : 제가 한국일보 주필로 있으면서 고액 봉급자가 나가는 것이 후배들에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소 빨리 퇴직을 하고서 세계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겁게 지내던 터에 딸 아이가 "아빠, 서울신문에서 CEO를 뽑는다는데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권하더군요.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사 상황을 잘 몰라서 공부가 필요했죠. 서울신문에 있는 선후배를 통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미 장관까지 지낸 분이 내정된 상태다, 그런 소문이 있더군요. 그래도 서울신문에 대한 희망적인 관단으로 경영기획서를 냈습니다.

김 : 종이신문이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신문 역시 그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기를 타개할 복안은 서 있습니까?

노 : 이렇게까지 서울신문의 상황이 악화된 줄 몰랐지요. 와보니 지난 3년간 5백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더군요. 전체 신문시장이 불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5백억원이 넘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취임 일성으로 "이 시간부터 비상경영이다" "더이상 차업경영은 안된다"며 하늘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파커의 타성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계경부 31%, 포스로 19%, 금호3%의 지분이 경해져 있는 언론사로서 정부의 협세가 들어와 있는 신문입니다 협세가 혓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끌고, 사원들이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더구나 대한매일신보를 승계해 올해로 102주년을 맞는 서울신문입니다. 이런 신문이 불행한 최후를 맞는 다면 한국 언론 전체의 불행입니다. 파커의 이지고잉하던 사고를 전환해 경쟁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고민할 것입니다. 저는 이에 조금이라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 회사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273번 버스를 타고 왔지요. 집에 갈 때도 회사 앞에서 151번을 타면 됩니다. 퇴근 후에 공무로 약속이 있을 때만 회사 차를 쓰고 나머지는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사장부터 그렇게 안하고는 회생할 길이 없지요.

김 : 회세를 돌려 고대출신이라는 점이 언론인로서 현장을 뛰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모교 후배들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노 : 사실 고대 출신들이 시작은 조금 느립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 촌놈들이 많았거든. 음악도 모르고 미술도 모르고 공이나 차는 것이 전형적인 고대생인데, 그 저력은 기자생활을 하면서 나타납니다. 즉 시동은 조금 늦게 걸리지만 탄력을 받으면 부한하게 뻗어나가는 게 고대에요. 그리고 세계 고대를 주창하며 모교의 국제화를 앞당기는 어윤대 총장에게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파커의 전통이 희석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미국의 종속이 아닌 세계화에 발맞춰 국제전문가로 성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히고 구수한 막걸리 전통도 살리면서 와인 고대의 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논어의 과유불급(過猶不及), 너무 앞서가려하지 않고 꾸준히, 내 있는 그대로의 살아가려한다는 글귀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노 사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인터뷰 도중 말한마디 한마디에서 신앙심이 느껴졌다. 그의 인생과 바찬가지로 서울신문에 대한 경영도 도덕적 부명성과 긴 호흡으로 영혼의 승부를 펼치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신문에 대한 경영기획서를 만들면서 가졌던 희망의 끈이 노 교우 개인의 목표가 아닌, 다수의 유익을 위한 목표이기에 서울신문의 성장과 발전에 고대의 힘과 영혼의 힘을 믿어본다.

〈대담 : 김용태 본지편집위원
現 메트로편집국장
정리:宋鍾顯 기자〉

24만 고대인의 소장품

『100년의 향기, 1000년의 빛』

"간추린 고대 100년사, 민족사학 백년의 발자취를 한 권에 담았습니다"

• 집필 : 이재호 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 / 최운호 동아일보 편집국 차장 • 그림 : 진영선 모교 미술학부 교수 •



발행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 판매 : 고대 라이시움 유니스토어 ☎02-3290-1863 / 광화문 일민미술관 1층 ☎02-2020-2086 • 정가 15,000원

한미동맹, 앞으로 더 역동적이고 양국 이익에도 부합될까?



김동연 칼럼 (*What's Your Take?* by Tong Kim)

〈11〉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와 관련된 국내 정치논쟁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지역의 불길함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워싱턴에서 만나게 된다. 그것은 한국 대통령에겐 6번째 정상회담을 위한 3번째 미국 방문이다. 두 정상의 마지막 만남은 2005년 11월 APEC 정상회담 때 경주에서 였다.

양국의 정상회담은 보통 양측의 실무진의 사전작업을 통해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된다. 정상회담은 두 나라 사이의 협의 내용 중에서 합의사항을 공식화하고, 인식의 차이등을 인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효과적인 대통령의 수단이다.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으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강조하고, 의견이 불일치 된 부분은 애매모호한 문장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외교적 특성이기도 하다.

한국은 부시 대통령이 영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졌던 크로포드에서 한 미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을 원했었다가 실패한것 같다. 외교에서 형식과 상징의 의미는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의 사안을 볼 때 형식적인 문제를 따질 수 없는 여유가 없어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간의 합의 내용으로 새로운 공동성명으로 뒷받침하면서 양국의 일치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성공적인 방문'으로 비춰질 것이다. 아마 지금 워싱턴에 가 있는 방미 선발팀은 이번 대통령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한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마지막 조율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노대통령이 랜드류 공군기지에서 내리면서 미국의 국무성 의전성, 동아시작관보, 공군기지사령관 뿐 아니라 주미대사관 직원들과 한인 커뮤니티의 몇몇 대표들의 환영을 받는 모습을 그릴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미소를 띠우면서 환영인파에게 손을 흔들면서 준비된 차에 오르고, 곧 그의 차량 행렬은 그가 전에도 묵었던 블레어하우스로 향한다.

보통 미국무장관은 블레어 하우스의 손님들에게 손님이 도착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도착 다음날 조찬을 주최한다. 조찬 후 노대통령은 마준관 백악관으로 길을 건넌다. 그곳에 도착하면 다시 의전장의 안내로 미국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된다.

두 정상간의 소규모 회담은 보통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여 20~30분 동안 지속된다. 그리고 종종 내각을 포함한 확대회담이 이어지기도 하는데 확대회담은 30~35분 정도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확대회담은 오찬으로 대체되기도 하는데 회담 직후나 오찬 전에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소규모회담에서 미국측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딕체니 부통령, 라이스 국무장관, 럼스펠드 국방장관, 헤들리 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노트 테이커가 참여할 것이다. 한국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장관, 주미대사, 청와대 안보보좌관, 그리고 홍보수석과 합참의장등이 노대통령과 함께 배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측에서는 보통 외통부 북미국장이 기록을 담당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회담장에서 양국 정상은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상관이 말하는 것을 따를 수 밖에 없어 준비된 주제에 관한 얘기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 합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부시정권이 북한의 위조지폐나 돈세탁 사건에 대한 강경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제정적 규제완화에 대한 어떤 징후도 없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정권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표현해 왔다. 그의 측근 중 하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하도록 요구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그가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돌 다 포기한 것처럼 들린다. 부시 대통령은 아마도 6자회담 복귀를 제촉하는 UN안보리의 결의를 강조할 지도 모른다.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합의를 되풀이 할 것이다. 두 정상은 모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북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대응책을 협의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UN안보리로부터 대북 제재에 관한 또 다른 결의안을 이끌어 낼 것이고, 새로운 결의안은 미사일 발사를 비난했던 지난 번보다 더욱 강한 제재를 조합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핵무기 실험에 성공한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한 사례는 없다.

만약 부시 대통령령이 핵실험이 없는 한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그의 말을 재확인한다면 노 대통령은 그것을 성공으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만 당장의 지역적 이익과 국제적 역할은 차이가 있다. 노 대통령 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정책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워싱턴과 평양의 극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북핵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 심각한 안보적 위협인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한다는 국방부의 견의를 받아들였다. 이는 전시지휘권 이양 이후에도 한국이 미국의 보완적 지원을 하면 한국이 단독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다. 이 시점에서 누가 먼저 작통권 이양을 원했는가를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심지어 2009년 이전에도 작통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후에 서울과 워싱턴에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이미 확정된 결정을 뒤바꾸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은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계속해서 냉전시대 동안 대량보복 교리하에 유효했던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선제공격의 새로운 전략적 교리에서도 이것이 효과적인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또 부시대통령은 진행중인 FTA협상이 미 대통령의 신속 협상권의 종료일인 내년 6월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노 대통령 역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동의를 표할 것이다. 또한 한 해 수십만 명씩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인들의 비자면제문제 등에 대해서도 긍적적으로 의견을나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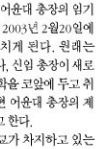
회담이 끝난 후 양국 대표는 한미 동맹관계는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역의 안보환경에 적응하는 조정을 걸친 후 견전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밝힐 것이다. 그들은 아마 동맹관계는 더욱 역동적이고, 포괄적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영문57 · 前미국무부 통역관 · 모교언구교수 · 존스홉킨스대 초빙교수〉(이 글은 김 교우가 8월 28일자로 코리아타임즈에도 영문으로 기고하였습니다.)

〈요약 · 번역: 白承鎭 기자〉

自鳴鼓

모교 총장선거를 앞두고



류동진
동아제약 상무

현재 모교 총장으로 있는 제 15대 어윤대 총장의 임기가 올 연말이면 만료가 된다. 지난 2003년 2월20일에 취임하여 임기 4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원래는 2006년 2월20일이 임기만료일이나, 신임 총장이 새로운 학기를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개학을 코앞에 두고 취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 어윤대 총장의 제안에 의하여 2개월이 앞당겨졌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고려대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위상을 고려해볼 때 차기 고대 총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비단 고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중대한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현재의 고대총장의 선출제도는 전임 김정배 총장 시절, 학교 구성원들의 다수가 김총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김총장의 연임에 반대하면서 학내분규로 발전했다가, 구성원간의 대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생겼다. 직접선거와 간접선거가 혼합된 선거제도다. 여기에는 그간 대학가에 만연된 직선제의 병폐를 불식시키려는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총장은 이른 바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이하 총추위)에서 선출한다. 총추위는 교수 15명, 교우회 5명, 법인 4명, 직원 3명, 학생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인이 이들 각 기관에 위원선정을 의뢰하여 총추위가 구성되면 입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특이한 것은 전체 교수가 이들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여 특정후보자를 걸러내는 직접선거제의 방식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 중에서 총추위에서 2-3명의 후보를 선출하여 법인에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법인에서 선임하게 된다.

이미 자천 타천의 후보들이,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물밑에서 나름대로 얼굴 알리기 작업을 하는 모양이다. 이 중에는 제수생(?)도 있고 새로운 인물도 있다고 한다. 현 어윤대 총장의 재출마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할 원칙은 역시 <고대의 발전>이다. 어윤대 총장의 취임과 개교 1백주년을 전후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그간의 열패주의(劣敗主義)를 떨쳐버리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약의 전기를 잡은 것이 사실이다. 한 조직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실감한 시기이기도 했다.

차기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렇게 어렵사리 얻어낸 호기를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로 쓸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행여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일반 정치판의 선거처럼, 고대 총장선거과정이 소모적이고 차기 파괴적인 혼탁상을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고대의 발전이란 대전제에 위배되는 전근대적인 행태를 보이는 후보를 용납할 만큼 우리 고대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각 후보들이 잘 인지해 주었으면 한다.

〈의학85 · 本報編輯委員〉

교우-포스트

校友動靜

중랑구의회 의원 대상 강연



▲全基成(행정56)=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이며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선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全교우는 지난 9월 1일 새로 구성된 중랑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서귀포 KAL 호텔에서 '1등의회, 1등의원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안산상공회의소 초청 강연



▲李明博(경영61)=전 서울시장인 李교우는 지난 24일 경기도 안산시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안산상의가 마련한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 특별 강사로 초빙돼 강연한 자리에서 자신의 국가 경영 철학과 일자리 창출 방법 등에 대한 생각 등을 설명했다.

천도교 17회 정기감좌 개최



▲盧泰久(법학66)=경기대 사회과학부 교수인 盧교우는 지난 25일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인내천 통일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제17회 정기강좌를 열었다. 이 강좌에는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체험 경제교육 연구회장 선임



▲柳柱壽(물리66)=명덕고등학교 교장인 柳교우가 지난 1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체험 경제교육연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연구회는 경제교육과 실생활을 접목하자는 중등교사들의 단체이다.

CEO 포럼 참석



▲金仁(경영68)=삼성SDS 사장인 金교우는 지난 25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정보산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CEO포럼'에 참석했다. CEO포럼의 주제는 과학기술 육성의 정책 변화와 IT산업 적용이었다.

국제청소년센터 드림텔 대표 취임



▲李康訓(경영68)=68교우회 회장인 李교우가 최근 국제청소년센터 드림텔(Dreamtel)의 대표에 취임했다. 국제청소년센터 드림텔은 국제교류사업, 국제회의 개최 등 국위선양과 관광 진흥을 도모하는 호텔수준의 숙박시설로 2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금호건설 상무,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이사 등을 역임한 李교우는 현재 금호건설 부사장, 금호인력개발원 원장 등을 겸하고 있다.

삼성화재 베이징지점 개소



▲黃泰壽(경영68)=삼성화재 대표이사인 黃교우는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北京) 초상국빌딩에서 베이징지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호정 삼성화재 중국법인장, 박근희 중국 삼성 사장 등이 참석했다.

명상서적 '기쁨의 날개' 출간

▲金相燁(교육68)=현직 교사인 金교우가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평화운동가이자 영적 스승인 스리 친모이(Sri Chinmoy)의 저서 '기쁨의 날개'를 번역·출간했다. 친모이의 저서는 金교우가 이번에 처음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다. 친모이는 인도인으로 힌두교의 기반에 서 있으나 기독교의 창조주 유일신과도 즐겁게 조화를 이루는 인도의 평화운동가로 유일신관과 범신론을 조화시키는 지고의 신성을 향한 부단한 해우침을 추구하기로 유명하다.

한국평생교육강사연합회 세미나



▲姜武燮(교육69)=강남대 평생교육원장이자 한국평생교육강사연합회 회장인 姜교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건국대 산학협력관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교육 질 관리'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모교 의료원 신축공사 계약 체결



▲邊仁根(건축공69)=중앙디자인 대표이사인 邊교우는 지난 31일 모교 의료원과 25억원 규모의 병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9월 17일까지이다.

구로병원장 연임



▲吳東柱(의학70·의학과 교수)=모교 의과대 교수이자 구로병원장인 吳교우가 지난 9월 1일 부로 구로병원장에 연임했다. 吳교우는 순환기학회 총무이사, 모교 의료원 정보전산실장, 심혈관중재시술연구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병원협회 국제이사, 서울시병원회 홍보이사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06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한국능률협회 조찬회서 강연



▲丁世均(법학71)=산업자원부 장관인 丁교우는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해 지난 25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최근 경제동향 및 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成尤甲(사학72)=관세청장인 成교우는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 정부 대전청사 1동 6층 대회의실에서 2006년도 제2회 전국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46개 세관의 세관장 및 본청 국·과장등이 참석했다.

한국심리학회장 취임



▲李鍾漢(심리72)=대구대 심리학과 교수인 李교우가 한국심리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학회장 취임식은 지난 18일 서울대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있었으며 임기는 1년이다. 부회장 또한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인 한규석(심리72)교우로 회장·부회장을 모두 모교 교우가 맡게 됐다.

아시아감사인대회 개최



▲金在日(경와72)=한국감사협회 회장인 金교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최신 감사기법을 교류하고 감사인의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2006 아시아 감사인대회'를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 동안 제주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행정도시 설계공모 심사위원 연담



▲李春熙(행정74)=행정도시건설청장인 李교우는 지난 29일 오후 3시30분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아르헨티나의 로돌포 마차도(Rodolfo Machado) 등 '행정도시 첫마을 국제설계공모' 심사위원들을 면담했다.

법무대학원 부원장 임명



▲安法榮(법학77·법학과 교수)=모교 법학과 교수인 安교우가 모교 법무대학원 부원장 및 대학원 법학과 주임에 임명됐다. 모교에서 법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安교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M)의 J.W-괴테(Goethe)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CNT 대량 합성 장치 개발



▲李鎭眞(전기공78·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모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인 李교우가 구리보다 1000배나 뛰어난 전기전도도, 강철의 100배에 이르는 강도를 가진 '꿈의 신소재' 탄소나노튜브(CNT)를 양산할 수 있는 체제인 'CNT 대량 합성 장치'를 세메스, 삼성코닝, 제이오, 아토등과 함께 개발했다. 이번 개발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CNT 합성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은 물론 대량생산 체제까지 갖춤으로써 CNT 분야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쿠쿠 대표이사인 구자신(경제61)교우가 지난 1일 '중소기업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중소기업인 명예의 전당'은 강원석 기업은행장이 중소기업인의 위상 제정립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4년부터 시작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 7인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성공신화를 이룩한 중소기업인을 선발한다.

구 교우는 78년부터 전기밥솥 한 우물만을 파 현재 국내 시장점유율이 현재 70%에 달하는 등 전기밥솥 업계의 '신화'를 만든 기업인이다. 만 8년 만에 100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 IMF 외환위기 때에도 매년 8억~20억원을 투자해 업계 최초로 전기압력밥솥을 개발해낼 만큼 연구개발에 대해 남다른 신념을 보이고 있다. 2005년 9월 말 기준으로 밥솥 제품 1,000만대 판매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2006년 6월 현재 1,200만대 이상의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여 고객의 꾸준한 사랑과 시장에서의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

구자신 교우, 중소기업 명예의 전당 헌정

구 교우는 '쿠쿠'를 종합생활가전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주방가전은 '쿠쿠', 생활가전은 '리오르' 브랜드로 점차 제품군을 넓혀가고 있으며,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를 비롯해 26개국에 수출하여 해외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품의 품질을 기본으로 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경영을 모토가 국내 밥솥시장 1위의 기업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경북력비협회장 취임

▲林敬久(경제80)=경산세무서장인 林교우는 지난 29일 경산세무서에서 최억만 경북체육회 상임부회장 등 도 체육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제38대 경북력비협회장에 취임했다.



정우제약 대표이사 선임

▲安亨俊(경제85)=ACTS그룹 기획조정실장인 安교우가 지난 31일 정우제약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정우제약은 최근 섬유 전문 업체인 ACTS 그룹으로 편입된 바 있다. 安교우는 모교 경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ATCS그룹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했다. 安교우는 "초일류 제약기업 실현을 위해 모기업인 ACTS그룹의 경영철학과 노하우를 접목시켜 사업구조 고도화와 연구개발역량강화, 제품경쟁력강화, 기업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모교 여학생감 임명

▲辛志美(국문85·국어국문학과 교수)=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辛교우가 모교 성희롱 및 성폭력상담소장 겸 여학생감에 임명됐다.



암름히버 코리아 상무이사 임명

▲曺影玆(정외86)=曺교우가 암름히버 코리아(AMROP HEVER Korea) 상무이사에 임명됐다. 曺교우는 그 간 콘페리 인터내셔널(Korn/Ferry International) 한국지사, 시니어 어소시에이트(Senior Associate),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Heidrick & Struggles) 한국지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등의 헤드헌팅 경험과 국내 대기업에서의 인사 및 교육업무 등을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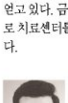
한림대 러시아연구소 학술대회 참석

▲禹坪均(정외88)=모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인 禹교수는 지난 9월 2일 한림대 러시아연구소에서 주최한 제2차 학술대회에 참석해 '동북아 영토 분쟁과 러시아 - 동북아 국제정치적 함의'를 주제로 논의했다.



대머리 치료 핵심 기술 개발

▲張龍泰(응동91)=(주)헥사곤 대표인 張교수가 최근 대머리 치료의 신기술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5년의 연구개발기간과 39억원을 투자한 이번 치료 기술은 2005년 11월부터 부산 동래역 인근에 한림대의 임상실험을 기초로 운영하는 치료센터에서 적용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급년 36세의 젊은 벤처기업가인 張교수는 앞으로 치료센터를 전국 주요 상권 핵심지역에 개설할 예정이다.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韓相敏(전파공92)=삼성종합기술원 연구원인 韓교수가 최근 RF/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 분야의 연구 공로로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의 과학 기술 분야 2006-2007과 아시아 지역 2007에 동시에 등재되었다.



아시아 증권사 베스트 연구원 10 선정

▲이해린(사회96)=교보증권의 제약·화장품 담당 연구원인 이교수가 미국 경제주간 포브스(Forbes)지가 선정한 '아시아 베스트 추천종목 선정 연구원 10'에 포함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종환 교수는(정외65) 가정부경영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 기념식 및 경영혁신 경진대회를 열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2년 연속 정부경영평가 1위 달성

정부경영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한 정종환 교수

의 경과 보고 및 4대 혁신영역(조직문화, 6시그마, 윤리경영, 고객만족경영)과 지식경영 결과물에 대한 발표와 시상이 이뤄졌다. 정 이사장은 철도공단이 2004년 1월 출범 후 2년에 걸쳐 벌인 6시그마 등 전방위적 인 경영혁신 노력이 본 궤도에 오르며 효과를 냈다.

철도공단 경영혁신은 '3P1C'로 압축된다. 즉 사람과 행태(People), 업무절차와 일 하는 방법(Process), 상품·서비스(Product) 등 3P와 문화·가치(Culture) 1C를 혁신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한국철도가 지난해 6월 중국 쑤이닝~충칭간 시험선 구간 감리용역 국제입찰경쟁에서 독일 네덜란드 등을 따돌리고 첫 국외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1월 우한~광저우 구간(무광선) 여객전용선로 공사감리계약을 추가로 따낸 것은 우 리 실력을 입증해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출범 첫해인 2004년 87개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 했으며 지난해에도 이해구등용협회장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경영품질대상 6시그마 혁신 부문 대상과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학저널 신인문학상 수상

▲李知映(서양사98)=李교수가 지난 5월 월간 문학저널에서 주최한 제33회 신인문학상 소설부문에 당선됐다. 李교수가 쓴 '꽃은 시든다'라는 소설은 승려들의 고스톱과 인생을 비유한 글이다. 李교수는 "작가라는 오랜 꿈이 싹을 희운 것 같아 기쁘다"며 "진지함 속에 숨어 가짓을 내보이지 않는 글을 쓰고 싶다"고 수상 소감문을 통해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임명

▲柳永烈(72석사)=숭실대 사학과 명예교수인 柳교수가 지난 9일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됐다. 柳교수는 고등학교 국사연구개발위원회 위원, 국사편찬위 '신편한국사' 편찬위원, 한일공동연구소 위원,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대계 편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제2기 하상신앙대학 강사

▲趙珖(73석사·한국사학과 교수)=문과대학장인 趙교수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한홍순)가 '주교님과 평신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일부터 진행하는 제2기 하상신앙대학에 강사로 참가한다.

모교 응용문화연구소장 부임

▲金文朝(76석사·사회학과 교수)=모교 사회학과 교수인 金교수가 모교 응용문화연구소장에 부임했다.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한 金교수는 미국 조지아(Georgia)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우정학사 기공식

▲李重根(04박사)=부영 회장인 李교수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운호고등학교에 '우정학사'를 신축, 기증키로 하고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李교수는 지난 7월 6일에도 경북 구미시 도개면의 도개고등학교에 우정학사를 신축·기증하는 등 각급 고등학교에 건물 기증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옥조근정훈장 수상

▲田明植(통계학과 교수)=모교 통계학과의 田교수가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통계의 날(9월 1일)을 맞아 통계청이 통계발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면서 이뤄졌다. 시상식은 지난 9월 1일 정부 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기념식과 함께 진행됐다.



「이휘소 평전」 출간

▲姜周相(물리학과 교수)=모교 물리학과의 姜교수가 작고한 핵 물리학자인 이휘소 박사의 학자로서 업적을 소개한 「이휘소 평전」을 펴내 화제다. 미국 뉴욕주립대(SUNY at Stony Brook)대에서 이휘소 박사로부터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받은 姜교수는 책을 통해 "선생은 소립자이론물리학자이지 핵무기 제조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 참여설은 이휘소를 아는 모든 물리학자들이 부인했다"고 밝혔다.



「소리를 질러봐」 출간

▲최준곤(물리학과 교수)=모교 물리학과의 최교수가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 도서 「소리를 질러봐」를 장경애 과학동아 편집장과 함께 펴냈다. 책은 공명, 회절, 충격파 등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물리학 용어들을 '소리로 유리컵을 깰 수 있을까', '도로 방음벽이 있는데도 시끄러운 이유는', '영화 속 충격전에서 옥에 티는' 등의 질문을 던지며 이해를 돕는다.



모교 과학영재교육원장 임명

▲魏寅淑(수학과 교수)=모교 수학과 교수이자 이과대학장인 魏교수가 지난 9월 1일 모교 과학영재교육원장에 임명됐다. 대한수학회 편집이사 등을 역임한 魏교수는 1983년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프라임캐피탈 대표이사 선임

▲金平坤(38경석)=프라임저축은행 상임감사인 金교우가 지난 16일 프라임캐피탈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조선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모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金교우는 동남은행 안산지점장, 프라임저축은행 이사,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수해 복구활동 펼쳐

▲길기연(14정석)=한나라당 서울시당 광진(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길교우는 지난 3일 주요 당직자 46명과 함께 수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방문해 수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현직 경찰 교수, 시집 출간

▲池奎煥(29경석)=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보안연구소의 池교수가 자신의 첫 시집 '날마다 한강을 건너는 이유'(민음사)를 지난 9월 1일 발간했다. 이 시집에는 '한강에 대한 명상' 등 한강을 주제로 한 시 외에도 저자의 유년시절 경험 등 일상생활을 소재로 다룬 작품 등 총 54편이 실려 있다. 15년 전 경찰이 되면서 다양한 범죄 현장과 서민들의 애환을 목격하게 된 池교우는 "경찰관으로서 인간의 정신적 순결을 회복하고 싶어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임원 · 심판연수회 강의

▲金東圭(07교석)=영남대 체육학부 교수인 金교우는 지난 25일 경주 로오풍호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2006년 가맹경기단체 임원 · 심판연수회에서 '스포츠윤리의 정초와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부산시교육위원회 의장 선출

▲李明雨(07교석)=李교우가 지난 9월1일 열린 부산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제5대 부산시교육위원회 제1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됐다. 李교우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교수, 제2 · 3대 부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의장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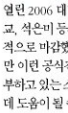
제주토평초교 교장 부임

▲金泰植(19교석)=제주 서계초등학교 교감인 金교우가 토평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 金교우는 72년 교직에 입문한 후 11개교에서 평교사로 근무했으며 토평초교를 비롯해 안덕초교, 서계초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했다.



전 탁구여왕의 늦깎이 은퇴식

▲柳智惠(42교석)=96년 아틀랜타 올림픽과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탁구 복식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柳교우가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제2체육관에서 열린 2006 대한항공컵 MBC 그랑프리 탁구대회에서 김무교, 석은미 등과 은퇴식을 갖고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공식적으로 마감했다. 柳교우는 "은퇴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줘 기쁘다.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스포츠심리학을 더 연구해 후배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2기 물가정보배 프로기전 시상식 개최

▲盧英鉉(40경연)=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회장인 盧교우가 후원한 제2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시상식이 지난 22일 18 : 30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되어 우승(이세돌 9단) 및 준우승(최원용 4단) 시상 등 공식행사와 축하공연을 가졌다.



'미자르' 산본 직영점 오픈

▲李大相(68경연)=경영대학원 교우회 부회장이며 (주)DSNS글로벌 대표이사인 李교우가 지난 26일 새로운 개념의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노래방 '미자르' 산본 직영점을 개점했다.



2006 JCI 서울세계대회 집행위원장

▲全宰範(75경연)=황도물류 대표이사인 全교우가 2006 JCI서울세계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1월 12일부터 COEX에서 열린다.



신용정보협회 회장 선임

▲尹義國(43고경)=고려신용정보 회장인 尹교우가 신용정보협회 제5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총회 만장일치로 선임된 尹교우는 초대회장(2000~2002년)을 역임한 바 있다. 尹교우는 "신용정보업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 업계의 기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49년생인 尹교우는 모교 경영대학원, 연세대 경영대학원, 서울대 정보통신 방송정책과정 등을 수료했다.



파인 주얼리 브랜드 이에스돈나 론칭

▲金基文(50고경)=국내 시계산업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로만손 대표이사 金교우가 지난 달에 고가의 파인 주얼리 브랜드 '이에스돈나(ES DONNA)'를 론칭했다. 지난 88년 로만손 창업 이후 시계 만들기에 전력해 온 그가 이제 주얼리 브랜드로 세계시장에 야심찬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이번 론칭은 2003년 선보인 중가대의 브랜지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러나(Jestina)'가 20~30대 여성들로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며 브랜지 주얼리 명품인 스와로브스키와 비견될 만큼 급신장하고 있는데 따른 자신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장학금 전달

▲宣彩圭(02교경)=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宣교우가 지난 31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재단 사무실에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장학금'을 원자력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6명에게 전달했다. 2004년 4월부터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전무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宣교우는 얼마 전부터 이사장 직무대행 직도 수행하고 있다.



경로당 229곳에 구급약 전달

▲鄒夢準(02고연)=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인 鄒교우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송파 · 강동구 관내 경로당 229곳에 전통제소독약 등 구급상비약을 무료로 전 달했다.



디지털경제포럼 조찬회서 강연

▲石鎭盒(11고연)=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인 石교우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디지털경제포럼(회장=장영달)이 주관하는 조찬회에 참석, '디지털경제의 비전과 과제'란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주안역 지하도상가 개장식 참석

▲安相洙(03고노)=인천광역시장인 安교우는 지난 9월 1일 오전 10시 주안역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완료에 따른 개장식과 함께 남구에서 설치한 교통광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주안역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열린 준공식에는 安교수를 비롯하여 박창규 시의회의장, 이영수 남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상가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 중앙광장 엘리베이터 정문에서 테이프 컷팅을 하고 조형물 및 지하도상가를 시찰했다.



기업은행 임직원 대상 강연

▲金彰坤(14고산)=한국전산원장인 金교우는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기업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유비쿼터스사회에 대비한 u-IT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金교우는 강연을 통해 디지털학명과 사회변화,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 정부의 향후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소개했다.



농촌지도자 화합전진대회 참석

▲權善宅(05고관)=국회의원인 權교우는 지난 23일 대전시 중구 산서민원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중구 농촌지도자 화합전진대회에 참석해, 지역농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현안문제 등을 협의했다.



김두진(정외73) 교수는 유럽의 '한국학 전도사'로 통한다. 모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했던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프랑스의 유명한 그랑제콜(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대학)인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에서 한국학을 가르친 데 이어 올 9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 부임한다.

"유럽에서는 아직 한국을 잘 모릅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한국의 영화나 한류, 최근의 북한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요. 그런 만큼 '한국을 중심으로 본 동아시아 정치 · 경제' '한국경제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등의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학이 처음 개설되는 것이라 학생이 적을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첫 학기 개설된 '동아시아 정치 · 경제'는 20명 수강인원을 꽉 채웠고, 두 번째 학기의 '한국경제와 지역주의' 과목에도 14명 정원에 11명이 수강했다.

김 교수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파리정치대학에



'민선4기 대전발전…' 특강

▲朴城孝(06고문)=대전광역시장인 朴교우는 지난 31일 오전 10시 대전시 오류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민선4기 대전발전 전략과 행정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경원대에서 박사학위 취득

▲金順辰(10고경통)=㈜놀부 회장인 金교우는 지난 24일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가맹점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한 논문으로 경기도 성남시 경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서 철학박사 학위 취득

▲河春花(06고자연)=가수인 河교우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이 대학 200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 제목은 '사회 변동기의 대중가요와 대중정서의 상관성 연구'이다. 河교우는 2003년부터 이 대학 대학원 동양철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으며, 예술철학을 전공했다.

訃 音



한국 빙상 1세대 원로 별세

▲李孝昌(보전38회)=48년 보전 제2전문부에 입학해 해방 이후 한국의 첫 참가한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빙상 1세대 李교우가 지난 26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고인은 44년 전일본선수권대회 종합우승, 46년 제1회 한국빙상선수권대회 우승 등 일찍감치 빙상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노르웨이 왕실 초청으로 참가한 노르웨이빙상선수권대회에서도 1,500m와 5,000m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졸업 후에는 상공부장관 비서관, 외자구매처 비서실장 등 공직에도 몸담았다. 84년에는 '세리온'이란 신물질을 개발해 90년 세리온 비누와 화장품을 발명했으며, 2002년 '독일 국제특허신기술전시대회'에서 이 제품으로 대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40년대 영화배우로 활약한 부인 하상남(효창예리온 회장)씨와 딸 이숙재씨 등이 있다.



정수영 전 상과대학장 별세

▲鄭守永(경영학과 명예교수)=61~65년 모교 상과대학장, 70~74년 모교 경영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鄭명예교수가 지난 27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52년부터 83년까지 31년 간 모교 교수로 재직한 鄭명예교수는 75년부터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88년부터 1년간은 대신투자자문과 대신경제연구소 사장을 역임했다. 유족은 부인 김영숙씨와 아들 병우(전 기업은행 종로지점장), 병주(제미사업), 병계(경기대 교수)씨, 딸 명희(사랑의교회 권사), 선희(우성여성병원 부원장)씨 등이 있다.



왕기항 전 사범대학장 별세

▲王基恒(교육학과 명예교수)=94년부터 97년까지 모교 사범대학장을 역임했던 王명예교수가 지난 20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고인은 65년부터 정년퇴임한 99년까지 34년 간 모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유족으로는 왕규호(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규봉(동고공고 교사), 규현(사업)씨 등이 있다.

2006년 9월정년 및 명예퇴임 교수 프로필

▲姜周相(물리학과)교수



△64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卒 △69년 미국 뉴욕(New York)주립대(SUNY at Stony Brook) 물리학 석사 △72년 미국 뉴욕(New York)주립대(SUNY at Stony Brook) 입자물리학 박사 △81년~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成和慶(기정교육과)교수



△63년 서울대학교 가정과 卒 △65년 서울대학교 가정학 석사 △98년 동국대학교 가정학 박사 △69~73년 고려대학교 전임강사 △73년~고려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2003~2005년 고려대학교 사범대 학장

▲金星洙(체육교육과)교수



△63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卒 △83년 독일 프라이브루그(Freibrug)대 의학과 卒 △83년 독일 프라이부르그(Freibrug)대 체육의학 박사 △85년~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2000~2002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奚澤燮(언론학부)교수



△65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卒 △73년 미국 인디애나(Indiana)대 신문학 석사 △77년 미국 인디애나(Indiana)대 맥스컴학 박사 △81년~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98~2000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원장

▲金承玉(독어독문학과)교수



△67년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卒 △69년 고려대학교 독문학 석사 △76년 독일 에어랑겐 뉘른베르그(Erlangen Nürnberg)대 독문학 박사 △85년~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2003~2005년 고려대학교 도서관장

▲馬茂夏(수학교육과)교수



△67년 경북대학교 수학과 卒 △69년 경북대학교 수학 석사 △77년 미국 앨리바마(Alabama)대 수학 박사 △80년~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93~94년 대한수학회 회장 △2000~2001년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학과장

▲金炯夏(교육학과)교수



△68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卒 △72년 고려대학교 교육학 석사 △83년 미국 미시건(Michigan)주립대 교육행정전공 철학박사 △87년~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000~2002년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장

▲李光錫(의학과)교수



△65년 고려대학교 의학과 卒 △68년 고려대학교 정형학 석사 △70년 고려대학교 정형학 박사 △89년 고려대학교 의학과 교수 △94~96년 미세수술학회 회장 △97~99년 고려대학교 의과학연구원 원장

▲金華榮(불어불문학과)교수



△66년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卒 △69년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 △74년 프랑스 프로방스(Provence)대 불문학 박사 △74년~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96~98년 고려대학교 도서관장

▲李平淑(간호학과)교수



△71년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卒 △74년 고려대학교 간호학 석사 △84년 연세대학교 간호학 박사 △71년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86~88년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

▲閔賢九(한국사학과)교수



△64년 서울대학교 사학과 卒 △68년 서울대학교 사학 석사 △81년~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95~97년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학과장 △97~98년 한국역사학회 회장 △2000~2002년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

▲丁海崙(의학과)교수



△65년 수도의과대학 의예과 卒 △69년 우석대 안과학 석사 △73년 고려대학교 안과학 박사 △83년~ 고려대학교 의과대 교수 △98~2000년 고려대학교 의과대 학장 △98~2000년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徐淵昊(국어국문학과)교수



△66년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卒 △70년 고려대학교 국문학 석사 △82년 고려대학교 국문학 박사 △82년~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87~89년 고려대학교 고대신문사 주간교수

▲趙星河(경영학과)교수



△66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卒 △70년 미국 휴스턴(Houston)대 경영학 석사 △71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93~95년 고려대학교 경영대 학장 △99~2001년 한국경영학회 회장



정달영 전 한국일보 주필 별세

▲鄭達泳(15고연)=전 한국일보 주필인 鄭교우가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시 탄현마을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67세. 고인은 지난 62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문화부장, 편집부국장, 편집위원, 편집국장, 주필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전복자씨와 욕, 민씨 등 2남이 있다.

바로잡습니다

- 지난호(433호) 제19면에 실린 李相洙(법학75)교우의 학번을 법학67로 바로잡습니다.
- 지난호(433호) 제20면에 실린 金禹龍(영문62)교우의 학번을 영문62로 바로잡습니다.

한국후지제록스㈜

THE DOCUMENT COMPANY
FUJI XEROX



후지제록스 문서관리 전문가 - 도큐 컨설턴트를 만나십시오

어떠한 형태의 종이, 전자문서라도 후지제록스의 토탈 문서 솔루션을 통해 자유롭게 저장, 검색, 공유 관리할 수 있으며,
원하는 문서를 언제든지 검색,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문서 공유 및 배포 등 문서흐름의 전반에 대해서라면 도큐 컨설턴트를 만나십시오



전문가는 더 큰 결과를 만듭니다 사무환경 컨설팅 문의전화 : 1544-8988

문서업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도큐먼트 솔루션
- Document Flow Services : 문서의 저장, 공유, 검색 등 정보흐름의 효율성을 높여주며, 정보공유와 지식관리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
- Management Services : 다양한 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뿐 아니라 개인별, 그룹별 작업내용 관리를 통해 TCO 절감에 기여하는 서비스
- Security Services : 정보와 데이터를 유출과 위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서비스

63시티 종합안내 | 789-9963, www.63.co.kr

생애 최고의 드라마,
63웨딩홀에서 연출해 보십시오.

클래식음악처럼 기품있고 영화처럼 낭만적인 결혼식, 63웨딩홀에는 품격 이상의 감동이 있습니다.



63웨딩홀이 드리는 감동의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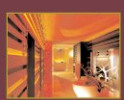
- 다채롭고 고급스러운 피로연 메뉴
국내 최정상급의 63조리진이 엄선된 재료를 이용해 준비하는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코스 메뉴, 뷔페 요리를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편리하고 여유로운 주차시설
넓고 쾌적한 주차공간, 친절한 주차 서비스로 하객들을 편안하게 모십니다.
- 지하철 1, 5호선과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
1호선 대방역, 5호선 여의나루역과 완전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공항이 멀지 않아 신혼여행 가는 길이 더욱 빠르고 편안합니다.
- 다양한 맞춤예식 서비스
2,500명 규모의 대형예식부터 300명 규모의 실속형 예식까지, 고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가격대의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3빌딩 식당가 안내


2008가지 뷔페요리
63 뷔페 파빌리온


일식요리의 진수
와고


5천년 중국요리의 신비
삑리향


신유럽주의 레스토랑 & 와인바


숯불갈비, 한정식의 명가
투포가든

CUCKOO
Creative Technology

역시, 쿠쿠 밖에 없네요!

모두들 저마다 자기 밥솥이 더 좋다고 외칠 때, 쿠쿠는 대한민국 밥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더 맛있게 먹고 싶은, 더 편리하게 쓰고 싶은 당신의 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쿠가 처음으로 개발한 기술만도 벌써 100여 가지... 그런데도 쿠쿠는, 새로운 기술을 또 먼저 선보입니다

쿠쿠만 믿으세요!



세계최초의 돌내솥채택
一品石 일품석

세계최초1

Xwall
THE EXTREME COATING
어떤 자극에도 상처받지 않는
압력전용 엑스월 코팅

세계최초2

인터넷으로 메뉴가 업데이트되는
최첨단 NetworkCooking 네트워크쿠킹

세계최초3

www.aju.co.kr

고객과 더불어 행복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미래를 개척하는 가치창조 기업!



아주그룹
아주산업 아주레미콘 브이원 대우케피탈 아주오토리스 여주오토캐피탈 AVIS 아주오토서비스
아주캐피탈 아주기술투자 아주엑세 아주냉장 아주아이티 아주인베스트먼트

모교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자료 모아

70년 당시 입학 통지서, 도서대출증, 수강신청 카드 등 70년대 모교 자료 포함

인터뷰

모교 관련 자료 30점 기증한 **권오복 (국문70) 교수**

지난 7월 26일 권오복(국문70) 교수가 모교 관련 자료 30점을 모교 박물관(관장-최광식 • 사학 72 • 한국사학과 교수) 에 기증하였다. 그가 기증한 자료에는 70년 당시 모교 입학 통지서, 도서 대출증, 수강신청 카드 및 고대 신문 주최 행사 자료 등 권 교수가 학교를 다닌 70년대 모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권 교수가 41년간 모은 일간지들은 모교 관련 역사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날 권 교수가 들고 온 75년 4월 9일자 중앙일보에는 당시 정부의 긴급조치 7호로 인한 모교 휴교령 기사가 권면에 실려 있었다. 반면 서울대는 하단 기사로 입시휴강으로 실린 것이 재미있다.

권 교수는 "당시 김상협 총장에 대한 '못 때우는 담배 때우고' 라는 문구가 특히 인상 깊다" 며 그 때를 떠올렸다. 권 교수는 당시 군대에 있으면서도 이 신문들을 손수 모았다고 한다.

70년대 당시 장안의 화제였던 고대 신문 주최 '역사상 인물 가상재판 초대권' 도 기증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다. 김상덕(역고 84) 실장은 "요즘처럼 놀이문화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가 연극과 놀이문화가 굉장히 큰 축제였다" 며 "가상재판은 그 내용이 일간지 문화면에 게재가 될 정도였다" 고 술회했다.

권 교수는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여서 강당 앞에서 티켓을 받으려고 수백 명이 줄을 서기도 했다" 고 말했다. 유신정권 시절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었으므로 대학가에선 풍자와 해학의 문화가 발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카타르시스도 대단했다고 밝힌다. 현실 인물을 직접 비판하지 못하므로 장영자를 비판할 때는 월계를 빗대는 등 역사 인물을 빗대어 비판하는 방법을 쓴 것이다.

70년대 수강신청 카드에도 재미있는 역사가 서려 있다. 73년 1학기까지는 수강신청 시 2개의 카드를 수기로 작성해야 했다. 그런데 73년 2학기부터는 모교 수강신청 행정이 전산화되어 타자로 작성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직 한글 입력이 되지 않아 알파뱃으로 한글 소리나는 대로 표기했다" 고 밝힌다. 이에 "지금 보면 무척 재미있다" 고 권 교수는 말한다. 권 교수가 모은 수강신청카드는 이런 행정 변천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권 교수가 기증한 자료에는 1970년 10월 2일 김상협 모교 6대 총장 취임식 식순과 취임사도 포함되어 있다. 권 교수는 "김상협 총장이 취임 시 했던 '지성과 아울러 야성' 이란 말은 지금 떠올려도 너무나 좋은 말씀" 이라며 회상한다. 또한 "공부만이 아니라 실천까지 강조한 김 총장은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았다" 고 술회했다.

"대부분 자신이 모아 둔 자료들을 이사를 거거나 이민을 가면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 말하는 권 교수는 "사소한 것이라도 모아 둔 것이 나중에 이렇게 가치 있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고 말한다.

최광식 관장은 "입학 허가서, 취임사 등 의외로 이런 자료를 많이 남기지 않는다" 며 "이렇게 학생관련 자료를 기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고 말했다. 최 관장은 "많은 교우들이 스스로 모은 자료들을 이제 무슨 가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며 "학생, 동아리 관련 자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또 내년 교우회 100주년 기념 3월호를 위해 학생들 행사 자료 및 각종 사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 또한 "이번 기증을 계기로 동창을 만나도 적극적으로 기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며 "우리에게는 별거 아니나 학교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모을 수 있었다는 권 교수는 앞으로도 자신이 모은 기사들 중 모교 관련 소식이 있을 시 지속적으로 기증을 할 계획이다.

〈張萬植 기자〉

고려대학교 고대식품가공라인

"고대빵" 2006 한가위 선물세트

올 추석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대빵" 한가위 선물세트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세요!
감사의 선물에 사랑과 정성까지 담아드립니다.



• 만주(소) 10,000
• 만주(대) 20,000



• 호두파운드(2줄) 10,000
• 호두파운드(3줄) 15,000



• 쿠키(3종) 10,000
• 쿠키(6종) 19,000



• 롤케이크(2줄) 12,000



• 스펀지케이크(2줄) 14,000
• 녹차스펀지케이크(2줄) 14,000

■ 문의사항 및 전화주문 : TEL : 3290~4065, e-mail : jokiya@korea.ac.kr
■ 배송안내 : 택배, 단체 주문을 받습니다. (3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 ■ 기간 : 9월 29일까지 입금 확인 후 배송(1-2일) 국민은행 048-25-1913-343 고려대학교



곽영일 칼럼 - 英語 · 美語 · 迷語 · 未語

〈4〉Hesitation Technique(더듬는 기술)

"말이 막힐 때 더듬는 것도 기술"

영어에 더듬는 기술(Hesitation Technique)이 존재한다고 하면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다. 세상에 가르칠 게 없어서 '더듬는 기술'을 가르치냐며 혀를 치기도 한다.

하지만 정통영어회화에서 문맹이 Hesitating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Function of English, Leo jones, Cambridge, 1975).

한마디로 더듬기(Hesitation)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It is a natural part of using a language). 물론 유창한 사람을 잘 더듬지 않는다(Fluent speakers don't hesitate very often).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대화에서 머뭇거리며 말을 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나 기자가 아니라면 말이 막히거나, 장조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더듬으면 좋다. 미완성의 문장에 대한 걱정 때문에 침묵을 지킨다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침묵은 혼란을 야기한다(Silence causes confusion).

Um, Well, You know, You see 등등을 써가며 스스로 대화 중에 말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것이 말(Conversation)의 특권이자 자유이다.

대화체 영어는 '무조건 틀린 대로 네맬는 것'이 좋다. 말이 막히면 침묵을 지킬게 아니라 'The thing is(그것은), In fact(사실은), How can I put it?(어떻게 말할까요?), As far as I know(제가 아는 바로는)'

물론 Hesitating words만을 계속 반복하고 본론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더듬으며 다음 말을 생각하면 된다.

더듬다 보니 할 말이 없다고?

그때는 'Well, I can't express myself in english right now(아무래도 영어로 지금을 표현을 못하겠어요)'라고 마무리 할 수도 있다.

문장체 언어(문어체)와 구어체 언어(회화체)는 차이가 있다. 옷으로 치면 정장과 캐주얼의 차이라 할까? 물론 캐주얼도 한껏 멋을 낼 수도 있지만 정장만큼의 부담은 없다. 편하게 보기 좋게 걸치면 된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회화의 기본이다. 다만 너무 장광설을 늘어 놓다가 핵심을 망각하면 곤란하겠다.

어찌됐던 말이 멱히면 곧바로 더듬는 것도 기술이다(Hesitation is a kind of conversation technique).

"수험생들, TeamSEE로 오세요"

특기강의 뿐만 아니라 수시모집생 상담

포커스 수시모집생 위해

사회적 벤처 TeamSEE 만든 모교 후배들

모교생 9명이 후배들을 위한 사회적 벤처 'TeamSEE(Team Specialized Equal Education)'를 만들었다. TeamSEE는 최근 해외에서 주목 받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기업의 영리와 사회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벤처이다.

현재 신동찬(언론03), 송시영(한문05), 김현조(산공05), 차승현(산공05), 박현진(정외05), 박선영(중문05), 이광걸(경경대06), 김한별(경영06), 양성후(경영06)씨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9명은 모두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으로 모교에 합격했다. 영어, 컴퓨터, 한자 등 각 분야에서 특기를 인정받아 대학에 들어옴 셈. 이들이 컨설팅에 나선 것은 대학 입시생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이다. 수시모집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힘들어 많은 수험생들이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TeamSEE는 모교 특기자 모임에서 시작됐다. 지난 2005년 만들어진 특기자 모임을 통해 TeamSEE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했고, 1년여 동안 꾸준히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초부터 사이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표인 송시영 씨는 "각 대학의 수시모집 인원이 늘고 있지만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학원은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며 "우리의 소질을 살려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뭉친 것"이라고 밝힌다.



이들은 사무실은커녕 변변한 사업자금도 없이 시작했다. 하지만 '젊음'과 '패기'를 무기로한 그들의 열정만은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다. 매주 수요일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강의 콘텐츠를 정하고, 각자 써온 대본을 함께 읽으며 고친다. 매주 금요일엔 대본을 바탕으로 실제 촬영을 한다. 모교가 재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작업실이 이들의 스튜디오다. 3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직접 만든다.

영어 면접, 컴퓨터 C언어, 한자 약어 강의 등 지금까지 인터넷 P2P 서비스에 제공한 강의만 30강이 넘는다. 강의당 수강료는 1000~1500원.

뿐만 아니라 이들은 동영상 강의와 함께 홈페이지(www.teamsee.com)에서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상담도 해 주고 있다. 상담료는 물론 무료이다. 특히 이들은 수시모집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어 많은 수험생들이 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입소문만을 통해 알려졌지만 현재 홈페이지의 회원수는 100여명을 넘는다.

학생이다 보니 힘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이 하다 보니 시간에 쫓길 뿐만 아니라 홍보활동도 서툴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젊은 열정만은 막을 수 없는 듯 하다. 김한별 씨는 "후배들한테 저렴한 강의료로 구체적인 수시모집 준비 방법 및 학습법을 전수하고 싶다"며 "오로지 '입소문'에 의지하고 있어 아직 촬영 테이프 값도 못 벌고 있지만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www.jei-edu.com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기에
교육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영화관 수천 개보다 소중한 건
명작을 만들만한 재능이고
자동차 수백만 대보다 중요한 건
명차를 만들만한 재능입니다.

학습시스템 사업에서 교육방송, 교육연수, 재능대학까지 아우르는
종합교육문화기업 재능교육이 세상 곳곳에서 즐거운 변화를 실천합니다.

즐거운 변화 -
JEI 재능교육
학습상담 1588-1132



모든 실버타운이 따라야 할 새로운 기준!
노블레스타워!

2006 년 6월, 신개념 실버타운이 종암동에 세워집니다.

국내 최초 삼성전자의 유비쿼터스 시스템 적용 및 도심형 온천시설을 갖춘 실버타운!
안전관리, 건강의료, 생활편의, 건강식사서비스 및 다양한 문화여가, 평생교육, 맞춤운동,
메저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 도심 속 행복공간 노블레스타워!
2006 년 6월, 대한민국 실버타운의 새로운 기준을 노블레스타워가 제시합니다.



| 의료서비스 |
삶의 터전은 건강할수록 좋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정기적인 종합건진과 건강상담을 실시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간호팀이 24시간 대기합니다.



| 도심형온천 |
삶의 터전은 편안할수록 좋다
노블레스타워현장 지하700m에서 퍼 올린 온천수로 생활의 활력과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전재 6층입사 중)



| 유비쿼터스 |
삶의 터전은 편리할수록 좋다
삼성전자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적용하여 입주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생활편의서비스 및 24시간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1인 맞춤서비스 |
삶의 터전은 다양할수록 좋다
의료간호팀 · 사회복지팀 · 운동처방팀 · 건강식사팀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입주 어르신 한분 한분에게 1대1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노블레스타워에는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 실버타운으로는 드물게 준공업지역이 아닌 도심 주거지역에 입지
- 뉴타운(길음, 미아뉴타운)의 최중심지에 입지해 미래의 투자가치 탁월
- 지하철4(길음역) · 6호선고대역) 인접, 버스노선 50여개, 간선도로 등 광역교통망
- 대학캠퍼스(고려대, 경희대 등), 개운산공원 등 쾌적한 주변 환경
- 대형백화점(현대, 신세계, 롯데), 종합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의료 및 전문 질환 치료서비스(치매, 중풍 등)
- 운영선납금 無, 타 실버타운 대비 최저가의 분양가와 월 관리비
- 최상의 레저서비스 및 타워 내 근린시설, 최고급 부대공용시설 완비 (온천사우나,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노인전용 영화관, 체육관 등)





60세부터의 즐거움과 90세이후의 편안함

2006 년 6월 21일 모델하우스 오픈!

문의전화 02)910-6090

| 총 280세대 | 18py(104세대), 19py(46세대), 22py(78세대), 32py(52세대) 시행사 동아백마백맹(주) 시공사 (주)대명건설 자금관리 KB 부동산신탁 분양보증 대한주택보증 homevita

교우신간안내



『글로벌 시대의 WTO의 이해』

김운태(상과64)교우 지음

물귤대사를 지낸 김운태 교우가 지난 6월 30일 정년퇴임에 맞춰 '글로벌 시대의 WTO 이해'라는 책을 냈다. 김 교우는 1980년대 후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통상 전문가다. 김 교우는 1982년 외교부에서 WTO의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업무를 담당으로 처음 통상업무를 시작, 1년간 GATT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GATT와 한국의 창구 역할을 했다. 이 책은 김 교우의 당시의 협상경험을 바탕으로 WTO 협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GATT 협정(창설, 규정 개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WTO 협정의 협상 배경, 협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만날 수 있다.

〈한경사 퍼냄 / 465쪽 / 28,000원〉



『민족일보 연구』

김민환(신방71 · 언론학부 교수)교우 지음

1961년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에 등장해 짧은 생애를 비극적으로 마감한 민족일보. 김민환(신방71 • 언론학부 교수)교우의 『민족일보 연구』는 사건사적 관심을 넘어 민족일보의 편집 전략과 주요 이슈에 대한 논조를 학술적 •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언론학 연구서다. 김교우가 제시한 민족일보의 편집전략은 '지식인 지향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논조의 차별성이다. 민족일보가 반공, 반북한, 반김일성주의 노선을 전제로 중립화 통일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루데타 세력의 법적용 논리는 허구적이며, 민족일보는 결국 박정희 집권 초기의 저항세력 제압과 사상적 의 구심 해소의 필요성에 따른 희생물이었다는 게 김교우의 결론이다.

〈나남 퍼냄 / 467쪽 / 15,000원〉



『한국사회 권력이동』

박길성(사회75) 교우의

'한국사회 권력이동'(굿인포메이션)은 권력이동의 양상을 정치 ·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찾고 그 의미를 고찰한 저서다. 지난해 한국청년경쟁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 '한국사회 권력 이동' 을 기초로 박 교우 외 학자 7인이 내용을 보강해 엮었다. 그 중 상징권력의 이동에 주목한 이남호 고려대 교수는 상징권력을 '우리의 지식 · 취향 · 생활양식 등을 규정하면서 우리들 내부로이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고 동화되 살아가는 일종의 사회 문화적 질서'로 규정했다.

〈굿인포메이션 퍼냄 / 278쪽 / 14,800원〉

화제의 신간 이재복(행정68) 교우 著
『기적의 원동력, 레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의 새로운 해석



세계 문학사상 불후의 걸작 소설로 추앙받고 있는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단축본으로 만들었다.

빅토르 위고가 17년간 집필한 『레 미제라블』은 필요 이상으로 군더더기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몹시 지루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참 읽다 보면 무엇을 읽고 있는 건지 오히려 의식의 혼란을 초래하게 한다. 또한 짧은 시간에 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문화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그토록 두꺼운 책을 여러 날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교우는 다수의 독자들을 위해 『레 미제라블』에 담긴 종교적, 사회적, 철학적, 법률적, 정치적인 모든 이야기들을 의미심장한 연어들을 구사하여 농축해 두었으므로 빅토르 위고의 위대한 유산을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청기와 퍼냄 / 670면 / 1만5천원〉

석탑논단 이요섭(경제55) 교우 著 『신용카드 경제론』

신용카드와 전자화폐 재점검을 위한 시침서





이요섭(경제55) 교우가 『신경카드 경제론』을 통해 오랜 금융기관 근무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우리 경제에서 대표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의 사용이 과소비를 초래하고 통화공급의 확대를 가져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의 도입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신용카드 산업 발전과정을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실증분석에서는 관련 이론들의 소개와 함께 회계수요 및 소비함수의 설정, 설명변수들의 선택 및 추정결과 분석에 있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체계적인 계량분석기법을 채택함으로써 분석의 '정치함(精緻, rigorousness)'을 높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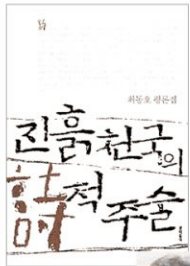
그리고 주요국 신용카드 산업의 발전과정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신용카드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사용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전자화폐와 전자금융의 도입 의미와 전자화폐의 사용 확대가 경제주체들 및 통화당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화폐신용경제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지급결제수단이 도입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이들 수단의 형태는 앞으로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도입되면, 그 결제수단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화폐에 대한 수요와 소비지출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기업들의 판매전략과 정부당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사회가 정착되기 이전인 1960년대 말부터 지급결제수단인 신용카드가 도입되어 그 이용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소비자금융이 취약한 상황에서 신용카드의 존재는 소비자들의 유동성제약을 완화시켜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지만, 소비자들이 비합리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사용자들이 사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소비지출의 위축과 관련 금융기관들의 부실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최근에 경험한 바 있다. 이 책은 신용카드와 전자화폐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폐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신용카드업계 종사자와 통화당국 정책책임자들도 이 저서를 통해 신용카드와 전자화폐의 사용 확대의 의미에 대해 재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학동네 퍼냄/357면/1만5천원〉

석탑논단 최동호(국문66) 모교 국문학과 교수 著 『진흑 천국의 詩적 주술』

'진흙 천국'을 균형·조화로 풀어낸 시평론집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활동해온 본교 국문학과 최동호(국문66) 교우가 여덟 번째 평론집으로 『진흙 천국의 詩적 주술』이 발간됐다. 최 교우는 평론을 통해 동양적 정신주의에 바탕을 둔 '균형과 조화의 미학'을 섬세하게 풀어낸다.

평론집의 제목 『진흙 천국의 詩적 주술』은 그 자체로 문명한 현실인식과 지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읽혀도 무방하다. 작금의 시대는 곧 진흙인 천국이고, 그곳에서 시란 주술과 같은 어떤 것이라는 것.

저자는 이 책에서 그의 시를 '진흙 천국의 생에 복수하는 시적 주술'이라 이르거니와, 이런 수사는 디지털 시대의 도취와 황폐로부터 인간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시여야 함을 힘주어 주장하는 1부의 논지와 맞닿아 보다 현실적인 의미를 얻는다. 차가운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이 가져오는 인간의 위기에 맞서 문학이 주는 의의를 무게 있게 다뤄졌다. 제목으로 사용된 '진흙 천국은 이성복 시인이'아, 입이 없는 것들에 쓴 말로 고통이자 열락인 우리 삶을 그렇게 부른 것이다.

시와 독자와 종교, 그리고 문학 교육에 대한 평문들을 모은 이 책의 1부에서 최 교우는 문학과 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그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 이전 평론집 『디지털 문화와 생태시학』(문학동네, 2000)에서도 진단한 것처럼,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은 인간과 생명의 의미를 위협하는 가혹한 신세계를 예비하고 있다. 이때 문학은, 시는 무엇인가. 저자는 "시의 힘으로 시인들 자신의 사회 · 문화적 지향점에 확신을 가지고 활동 반경을 넓혀갈 때 인류는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과학기술 만능주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천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망한다. 그러한 문명사적 임무를 위해 저자는 문학 교육의 방법을 비롯해 한국시의 종교적 상상, 생태적 상상력의 문명사적 의미, 그리고 동아시아 자연시의 전통 등 폭넓은 방향에서 시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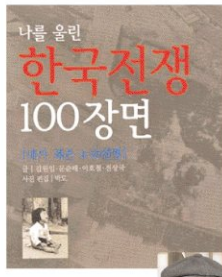
〈문학동네 퍼냄/357면/1만5천원〉

석탑논단 박도(국문65) 교수 著 『나를 울린 한국전쟁 100장면 - 내가 겪은 6·25전쟁』

렌즈를 통해 본 한국전쟁의 참상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숨이 멎을 듯하다. 고개를 끄덕이다가, 심각해 졌다가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는 다시 희미하게 미소를 짓게 만든다.

온퇴 교사이자 소설가인 박도(국문65) 교수가 한국전쟁 관련 사진들을 엮은 『나를 울린 한국전쟁 100장면 - 내가 겪은 6.25 전쟁』을 펴냈다. 박교수는 미 국립문서보관청에서 한국전쟁 관련 사진을 발견해 그 간 『지울 수 없는 이미지 1, 2』를 출간한 바도 있는 박교수가 추리고 추린 100장의 한국전쟁 관련 사진이 이 책에 실려있다. 이중 대부분의 사진이 박교수를 통해 국내에 처음 공개된 사진이다.





영어와 러시아어로 적혀 있는 38선 경계 표지, 전방으로 떠나는 아들에게 붉을 한대접 권하는 어머니, 네이팜탄에 맞아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여성, 자신이 판 구덩이에 들어가 죽음을 기다리는 인민군 부역자 등등의 사진은 천 마디의 말 보다 한국전쟁의 아픔을 더욱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전쟁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수 많은 사진들이 책에 실려있다. 한 장, 한 장이 한편의 소설이 되고 영화가 될 법한 사진들을 글로써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산길 들길 아무데나 지천으로 흩어져 있던 시체더미들, 핵폭탄으로 쓴 문장을 읽어 가노라면 만나게 되는 키워드가 '연민의 지평'이다.

이(전투기)들이 염소 똥처럼 마구 쏟아 떨어뜨리는 포탄…, 등등의 사진은 직접 보지 않는 한 가슴에 와 닿게 끔 설명할 도리가 없음을 모를 것이다.

이 책은 신세대들에게 한국전쟁의 참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기획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 사진으로나마 역사의 단 초를 넘기자는 기획자의 의지는 책을 펴고 몇 장의 사진들을 접하는 순간 바로 느껴진다. 특히 책의 말미에 포함된 한국전쟁 당시 아동들의 사진은 동란의 와중에도 희망을 찾았던 당시 사람들의 일면을 느낄 수 있게 해줘,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옥 와 닿는다.

책은 박교수가 발굴해 낸 사진들 외에 한국전쟁을 직접 체험한 작가들의 체험기가 함께 들어가 있다. 글을 집필한 네 명의 작가는 그동안 문학을 통해 꾸준히 전쟁의 상흔을 형상화 해 온 김원일, 문순태, 이호철, 전상국 씨다. 김원일 씨는 서울에서 겪은 인공치하 석 달을, 문순태 씨는 빨치산의 활동과 전란이 할퀴고 간 호남지역의 실상을, 이호철 씨는 어처구니없는 전쟁의 실체 정황과 상흔에 대한 증언을, 전상국 씨는 강원지역에서의 전쟁 체험을 기록했다.

〈눈빛 펴냄 / 167면 / 15,000원〉

석탑논단 김충식(철학73) 著 『슬픈 열도』

일본과 얽힌 한국인들의 이야기 담아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그들에게 돌을 던지더라도…증오하고 칠을 뿔기에는 너무도 쓸쓸하고 가련한 삶, 나는 오늘 연민의 지평에서 그들을 바라본다."

김충식(철학73) 교수의 새 책 『슬픈 열도』는 일본과 기막힌 운명의 실타래를 맺은 10명의 한국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월간 신동아에 '열도의 한국혼'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평전의 주인공인 이들에게서 언뜻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다.



일본의 힘을 업고 혁명을 도모했던 김옥균, 일본인이 준 것은 입에 대지 않겠다며 곡기를 끊고 버티다 쓰시마섬에서 숨진 최익현, 일진회란 때 끌려간 조선 도공으로 일본 자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이삼평, 무명 씨름선수에서 전후 일본 대중의 영웅이 된 레슬러 역도산(김신락), 제일 한국인 최초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소설가 이회성…. 개중에는 반일 인사도 섞여 있지만 친일파라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는 이도 있고, 한국의 핏줄을 감추려고 몸부림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일본열도와 한반도를 오가며 펼친 곰곰한 현장취재와 관련 문헌에 대한 해박한 독해를 바탕으로 한 인물들에 대한 평전은 일본 총리 후보이자 독도 해저 측량 소동을 배후에서 지휘한 강경파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다.

그렇다면 이런 오랜 악연의 연원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한 것일까. 김교수는 시마구니 곤조에 주목한다. 시마구니 곤조는 왜 서양에 적응되지 않고 한국을 겨냥하는가. 저자는 일찍 이후 일본의 왜곡된 가해 심리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그러나 기기에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과절한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의 또 다른 한(恨)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효형출판 펴냄 / 332쪽 / 9,800원〉

교우신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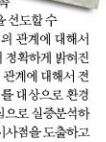


『시간의 의미를 찾아서』
박성근(물리76) 교우외

과학자, 과학잡지 편집장 등 10명이 과학 잡지 '사이언스 올제'에 연재했던 글들을 박성근(물리76 · 물리학과 교수) 교우가 수정, 보완해 『시간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시간의 의미, 시간과 관련한 물리 · 철학 · 인류학 · 기술, 시계의 발전사, 미래의 시계 등을 이야기한다.

이 책에 따르면 흔히 결합 수 있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표현이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물리학자와 철학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시간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시간의 개념을 지금처럼 규정한 건 달력과 시계를 만든 인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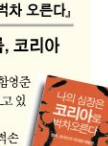
〈과학과문화 펴냄 / 192쪽 / 23,000원〉



『환경규제강화와 경쟁력』
조주현(경제84) 교우

환경규제강화와 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관점으로 환경규제강화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에 대두된 이른으로 환경규제강화가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규제강화와 경쟁력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누가 옳고, 틀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본 책에서는 환경규제강화와 경쟁력의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규제의 영향을 생산성, 효율성,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는 책이다.

〈한국학술정보펴냄/208면/1만4천원〉



『개념없니』
최지목(생물 90) 교우지음

'산 정상에서 외치는 함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작은 힘이 되고픈 게 바로 개념없니의 바람이야'

『개념없니』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 속에서 스스로 하는 공부, 재미있는 공부를 모토로 만들어진 수학 참고서이다.

대화식 설명, 중요 내용의 만화 삽입, 과격적인 디자인 등을 통하여 수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자 노력했다.

〈자유로운생각 펴냄/358쪽/1만2천원 12,000원〉

화제의 신간 함영준(노문75) 교우 著
『나의 심장은 코리아로 벅차 오른다』

해외에서 더욱 자랑스러운 이름, 코리아



국민대 검일교수이자 전 조선일부 국제부장인 함영준(노문75) 교우는 한국인에게 두 가지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만주 땅을 호령하던 북방 몽골계의 적은으로서 선천적으로 유전화된 '전사기질'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 농경사회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후천적으로 체득화된 '선비기질'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자부심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아마도 그건 우리가 너무 힘든 근 · 현대사를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자부심이 부족한 사회는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구성원 상호간에도 포용과 배려가 부족하다.

함교수가 미국, 홍콩, 중국, 인도, 베트남 등지의 체류 및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심장은 코리아로 벅차 오른다』를 펴냈다. 국내 · 외로 어수선한 요즘, 그의 책을 읽고 자만이 아닌 자신감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위즈덤하우스 펴냄 / 260면 / 10,000원〉

석탄칼럼 주례 유감



심 경 호
문과대학 한문학과 교수

결혼 결심한 의지의 청년, 그 결단에 박수!

그날도 그랬다. 아침부터 아내의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시계를 자꾸 보았다. 토요일 오후에도 바깥일을 본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아내는, 끌내 통명스럽게 한마디 내뱉었다. 그래,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남 주례에서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가정도 돌보지 않는 내 사 가정을 꾸미는 사람들에게 축사를 한다는 것이 못내 못마땅했다. 주례사 쓴 것 좀 줍시다. 뭐라고 미사여구를 늘어놓았나 보게, 아니, 검열을 하겠단 말이오? 늘 엄마 편인 딸아이가 전날 밤에 글을 써서 넣어둔 봉투를 책상에서 냉큼 집어 왔다. 아내는 한참 눈을 주더니만 접첩접첩 접어 봉투에 넣고는 건넸다. 이따 돌아와서 봅시다. 그렇다면 그 글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다. 하긴, 나는 내가 신성한 예식을 집전할 만한 연분도 없고 덕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서두에서 꼭 밝히지, 그리고는 신랑과 신부에게 두 가지를 말한다고,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 대하듯 하란, 인생을 십 년쯤 멀리 내다보고 살아가란.

부부 사이라 해도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같이 하라는 말은 상경여빈(相敬如賓)이라는 성어를 풀이한 것이다. 십 년쯤 멀리 내다보라는 말은 선배 교수님께서 혼계하신 이야기를 옮긴 것이다. 둘 다 잘 지킨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그렇게 다짐하고 있다. 아내도 알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 보자고 하는 말로 당장의 체근을 유예한 것이 아니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앞에 선 신랑 신부를 바라보니, 그 성성한 얼굴들이 너무 아름다웠다. 신랑은 학부 시절과 대학원의 제자로서, 늘 오른쪽 중간 부분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던 사람입니다. 와하하 웃는 소리가 났다. 아마 동문들인 모양이다.

일본의 노교수님을 만났을 때, 큰 따님 일이 궁금하여 여쭌 적이 있었다. 십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김포 공항에 들른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였다. 프랑스 음식점에 따로 앉아 계신 노교수님 어께가 돌연 처졌다. 아직 결혼을 안 했지, 일본에서는 하도 이혼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결혼 자체를 꺼린다네, 그 말씀에 묘한 느낌을 느낀 것이 지금부터 꼭 십년 전이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늦추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마 가장 클 것이다. 동료 교수들은 지도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자랑거리로 삼으실 정도다. 생각해 보면 역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장 힘이 넘쳐 날 때 결혼을 하는 것이 옳다. 서른냇에 장가 든 나는, 일찍 결혼하지 못한 것을 늘 후회해 왔다. 할 공부와 할 일이 많아서 어린 나이의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다. 가족 위해 일한 게 무어냐고 아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주례 또는 일은 꼭 즐겁지만은 않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식장으로 찾아가는데, 교통편이 복잡해진 생가시다. 식이 끝난 다음에는 음식 담은 접시를 들고 자리를 찾으려고 휘휘 둘러보아야 한다. 모르는 하객들 사이에 끼어 젓가락을 놀리는 일도 아주 댓쩍다. 그래서 졸업생이 주례를 부탁하러 오면, 음식 먹을 자리만은 말아달라고 이쪽에서 오히려 부탁하고는 한다. 그러나 졸업생의 주례를 서는 것은 참 기쁜 일이다. 결혼을 결심할 만큼 의지가 강한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 말이다. 그 결단에 박수.

교우칼럼 '세계고대'와 기독교

'세계고대'를 경영하자



원 광 기
철학61
고목회 회장 · 침실교회 담임목사

암울했던 100년 전의 한국 땅을 밟히고자 세워진 민족고대가 이제 개교 2세기에 들어섰다. 과거에 이 민족 앞에 주어졌던 도전은 '민족지키기'였다. 민족이 풍랑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꼭 잠든 민족을 깨울 사람이 필요했었다. 그런 사람을 길러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민족고대'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지난 세기의 주제가 '민족'이었다면 오늘날의 주제는 '세계화'다. 그래서 지난해 열렸던 고려대 개교 100주년 축제의 중심테마도 '세계고대'였다. '세계 100대 대학'을 목표로 내걸었고, 노벨상 수상자들도 와서 강연을 하였다. 그런데 '세계고대'의 목표가 제시되자, 그렇다면 '민족고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 '민족'과 '세계'는 같이갈 수밖에 없다. 지난 세기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 준비 안된 우리 민족 앞에 세계 열강의 힘이 갑자기 밀어닥쳤기 때문에 발발된 것이 아니던가? 글로벌 시대인 오늘날 '세계화'를 외면한다면 100년 전의 위기가 이 민족 앞에 다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세계고대'는 이제 우리가 갈 방향이고 비전이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보여주는 고대 교우들의 활약은 참으로 눈이 부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종교분야에서도 고대 교우들이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 출신 기독교 목회자들이 450여명이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진출하여서 종교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중요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분들 중에는 고대 교우인 장로들도 상당히 많다. 얼마 전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장로도 그런 저랑스러운 우리 교우 중의 한 분이다.

목회자인 본인은 이런 면에서 기독교가 '민족고대'의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계고대'로 성장하는 데도 밀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화는 세계경영의 단계까지 가야 한다. 지난 세기에 '세계경영'을 주창한 기업인이 있었다. 그런데 '세계경영'은 그 기업인이 말하기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이기도 하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26~27절에 '여호와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말씀이 나온다. 이것은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앗시리아가 약소국가인 이스라엘을 짓밟을 터이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응징하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실 것이라는 예언 중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를 경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알고, 그 세계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고대'는 세계를 경영할 지도자를 길러내야 한다. 그때에 '세계 100대 대학'을 넘어 진정한 '세계고대'가 될 것이다.

알기쉬운 자유경제 ◆제260회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통성"



이 철 승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자주독립과 민주통일이라고 생각한다. 1945년 12월 28일 열린 반탁국민 총궐기 대회를 기점으로 좌의 공산진영과의 투쟁이 이어졌다. 결국 그 반탁 반공 투쟁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은 출발한 것이다.

1948년 유엔감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탄생하였고 따라서 유엔 감시아테 처러진 자유선거에 의해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 지지로 건국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통성을 훼손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집권 세력이 앞장서 건국이념 정통성을 훼손, 부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지난 날 극단주의 비타협 노선이 나라를 분열시켜 왔고 불행한 역사를 낳았다 해방 후 정부수립 과정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통합주의 노선은 좌절하고 말았다' 고 말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과 합작하지 않은 것이 건국사의 잘못이라는 의미다. 남북 분단의 원인은 남북동시 선거로 정부를 수립하자는 이승만 등 민족진영의 제의를 김일성이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스탈린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거부함으로써 분단이된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선군정치로 일관하고 있는데 현재 남한의 사회, 예술, 문화 등 모든 분야는노무현의 코드 인사로 좌익세력에 장악됐고 사회는 도덕적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일 리가 있다. 북한에 대해 지원을 늘리겠다" 고 발언해 왔다. 미국에 대해서는 '할 소리는 하고 얼굴을 붉히겠다" 고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웠다. 그 결과 한미동맹은 사문화되었고 이제는 드디어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도 2009년에 우리에게 넘겨주겠다고 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자주국방을 내세워 작통권을 회수하겠다고 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제라도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반대교사로 삼고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주독립과 민주통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크리슨 그림판 박상욱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제패 70주년

그때 나는 한국이었다. 그리고 고대인이었다.

"아나운서에서 토셀 홍보대사, 영문학 박사로"

포커스 토셀 홍보대사

오승연(미교96) 교우



미술 교육과를 졸업하고 2000년 SBS 아나운서 공채 8기 합격으로 방송인의 길을 걷게 된 행운의 주인공은 갑자기 1년 만에 이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학업을 시작, 지난 25일 영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TOSEL(EBS에서 개발한 영어능력검정시험) 홍보대사로 활동. 이러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는 바로 오승연 아나운서. 그녀를 학내 한 카페에서 만나보았다.

"방송 일을 하는 1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1년이 짧아 보이지만 자신에겐 견뎌 그렇지 않았다는 오 교우는 방송이 상대적으로 내실보다는 외모에 치중해야 하는 직업이란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의 미래에 한계를 느꼈다.

실제 예능국 담당 아나운서로 발탁되었던 오 교우는 그 때부터 고민을 시작, "나 스스로의 전문적 영역을 구축해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 교우가 박사학위를 받은 정확한 분야는 초등학교 영어교육학이다. 왜 영어교육학을 선택했냐는 질문에 그녀는 국제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영어를 접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중에서도 언어학보다는 초등학교 교습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오 교우에게 현재 초등영어 교육의 실태에 대한 진단을 부탁했다. 그녀는 평소 생각했던 문제의식들을 한가득 털어 놓았다. 그녀는 평가 방법에 따라 공부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만 자체적으로 가진 평가유형이 거의 없다는 그녀는 "현재 초등학교 3,4학년부터 토익, 토플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런 한 가지 유형만으로 영어 공부를 지속하면 영어에 쉽게 싫증을 내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사교육 시장의 비대화를 부르고 결국 영어실력의 빈익빈부의부를 불러온다고 오 교우는 지적한다.

"우리만의 평가기준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오 교우가 EBS 방송이 내놓은 TOSEL 홍보대사를 맡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토셀 홍보대사는 여타 다른 홍보대사와 달리 많이 바쁘다"고 오 교우는 말한다. 수많은 교육 관계자 분과 인사과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홍보하는, 발 그대로 발로 뛰는 일이기 때문. 그럼에도 그녀는 "애국자가 된 느낌"이라며 미국의 토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토셀을 고대생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녀의 학창시절은 어땠을까. 놀랍게도 그녀는 별명이 귀머거리였을 정도로 공부만 했다고 한다. 외모로 볼 때, 그녀는 뭇 남학생들을 무척이나 설레게 했을 법 하지만 정작 그녀는 사범대 건물과 도서관 건물을 오르내린 것 외에 학창시절의 기억이 별로 없다고. 그녀는 목표를 정하면 한눈팔지 않고 정진해 결국 이루고 마는 노력파인 셈이다.

다시 방송으로의 복귀를 꿈꾸는 그녀는 "자신은 있지만 섣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방송과 학문 연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것이 말처럼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이미 전임 교수가 되어 후학을 양성하면서 방송도 하는 자신을 꿈꾸는 그녀에게 이 꿈은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지도교수인 영문과 박경자 교수님과 법대 이기수 교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그녀는 "항상 세심에 힘어나 스케쥴을 관리하는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분들"이라고 말한다. "근면 성실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분들"이라며 감사를 표한 그녀는 많은 후배들과 교우 분들도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張馬植 기자〉



권오상의 웰빙건강 칼럼 〈8〉

항문 닫기

어렸을 때 똥침을 피르가를 많이 해 괄약근을 많이 조이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정력이 좋다는 말처럼, 정력을 강화하고 요실금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히프를 올라가게 하여 멋진 몸매를 만드는 최고의 운동은 '괄약근을 조이는 것'이다. 문제는 힘으로 억지로 조이면 괄약근이 경직되어 도리어 변비에 걸릴 위험성도 있다. 제대로 괄약근을 조이려면, 괄약근을 조이지 말고, 괄약근이 조여지게 항문을 닫는 것이다.

1. 발을 11자로 해서 어깨 넓이로 선다.
2. 사립문을 닫듯이 발 가락을 문의 축으로 삼아, 발 뒤꿈치를 안으로 민다. (발 뒤꿈치가 닿는 것이 좋으나 몸이 굳은 사람은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3. 뒤꿈치를 원 위치 시킨다.

호흡에 맞춰 항문을 닫았다 열었다. 한다. 많이 할수록 좋지만, 시간이 없을 때에는 최소 한 번에 10회이상 하는 것이 좋다.





고캐 고자로

프랜차이즈 PC방 업계1위 **최연욱(화공85) 교우**



지난달 17일, 사이버파크 대표인 최연욱(화공85) 교우가 PC방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인체공학적 기준으로, PC 좌석의 데이터를 이용한 PC방 내부 인테리어 시스템'을 발명해 특허를 취득했다.

최 교우는 "이번 특허 획득은 2004년 초에 출원한 특허가 2년여 만에 등록된 것으로, 사이버파크는 초기 런칭 시점부터 당사의 CFO인 이종수 부사장을 비롯한 자체 디자인 연구소를 통하여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통한 PC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형정 칼럼
學魚詩習誌 〈44〉가물치

왜인들
즈그 물자락에
이처럼 큰
물고기 업석
모셔기더니
이제는 지들 토종
싹쓸고 있다고
법석을 떠는데도
눈하나 깜뻑않는
싱싱한
조선 가물치



가물치(*Channa argus*)

우리에게 매우 낯익은 이 물고기는 농어목 가물치과에 속하는 길이 1미터가 넘는 대형어종이다. 저수지, 늪등 물이 고여 있고 수심이 얕으며 물풀이 무성한 곳에 주로 자생한다. 오염되고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도 잘 적응하여 사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매우 사나운 육식성어종으로 물고기, 개구리, 수서곤충 등을 먹고 산다.

가물치는 일본에는 없던 어종이었으나 일제 시대 때 한국으로부터 도입, 지금은 위해외래종으로 분류될 정도로 일본열도의 생태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 이름도 우리말을 그대로 옮긴 '가무루치'로 부르고 있다. 필자는 지난 8월 일본국제환경학술심포지움에서 한국의 하천 생태계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토종 가물치가 외래종 배스를 퇴치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였다. 한국의 가물치가 일본의 하천을 결정하여 송독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글 · 시진이학영(충문74)교우 · 한국자생어종연구협회 회장 · ☎016-274-7282 koreafish@hotmail.com〉

박찬호 한의사 동생, 왜 형이 비타민 못먹게 하나?

중산의화 (仲山醫話)

〈21〉 비타민제

얼마 전에 데이저리거 박찬호 선수가 한의사 동생의 충고로 비타민을 먹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운 게 도둑질(?)이라고 전공이 전공인지라 부슨 내용이 실렸는지 궁금해 기사를 한 글자 한 글자 뜯어 읽었다. 그런데 웬걸, 정작 비타민 복용을 막은 이유는 끝내 보이질 않는다.

분득 국제해양법 재판소 박춘호 재판관이 생각난다. 연전에 그의 자문을 구할 일이 있어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7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리만치 정정한 그에게 인터뷰 말미에 건강의 비결을 물었다.

"나는 자연치유력을 믿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없지만 약은 절대로 안 먹어요. 보약이다, 영양제다 뭐다해서 젊었을 때부터 약을 달고 살던 친구들, 지금 저보다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고혈압 약, 당뇨 약 등 약의 가지 수와 양만 더 늘었습디다." 11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그를 보며 고희를 훌쩍 넘긴 연세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원한 현역'으로 활동하는 그의 다이내믹한 에너지의 원천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박찬호의 한의사 동생은 왜 형의 비타민 복용을 그토록 싫어하는 거냐고 묻는다. 나는 그에게 대뜸 박춘호 선생의 말을 들려준다. 굳이 동양의학이다 서양의학이다 할 것 없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 탓이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은 국민도 드물다. 농을 섞어 말하면, 새벽 5시 이전에 서울 시내를 활보하는 사람들 중에 새벽기도 가는 사람을 빼면 모두 운동하는 사람이고, 밤 10시 이후에는 술 마신 사람을 빼면 전부 운동하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유사 이래 인류의 구원한 소망이다. 이 욕망은 너무나 본능적이기에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기왕 한평생 사는 거라면(Being) 잘 사는 게(Well- being)좋은 거 아닌가? 요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데 있다. 비타민의 효능과 장단점에 대해서는 서점이든 인터넷이든 정보가 범람하므로 여기선 논하지 않는다. 또한 박찬호 선수의 한의사 동생이 말한 비타민은 필시 자연 식품 속 천연 비타민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합성 비타민일 터이다.

잠시 생각을 해보자. 한의학에서는 약제를 포함한 모든 음식물은 편중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약재의 편중된 성질과 성미를 이용하여 우리 몸의 편중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게 한의학 치료의 근본 원리다.

물론 예외는 있다. 대표적인 게 쌀이다. 쌀은 편벽된 기와 성미를 가진 게 아니라 중정(中正)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처럼 쌀은 중용(中庸)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다른 음식물들은 거개가 장복하거나 상용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토록 좋아하는 인삼 녹용은 물론이고 항상 유행병처럼 만연하는, 자연식품(Natural Food)이란 미명하에 통용되는 각종 건강식품도 대개 편벽한 성질을 띠고 있기에 전문가의 지시나 처방 없이 상식하거나 장복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기호식품도 당연히 포함된다.

천연 음식물이나 약제도 그러하거늘 합성식품, 합성약품이야 일러 무엇 하겠는가? 굳이 제약사의 판매 전략이나 홍보전술 등을 논할 것 까지도 없다. 예컨대 비타민 C가 모자라면 그것이 함유된 과일이나 야채를 직접 먹어야지, 비타민 C가 과도하게 함유된 비타민 음료를 사먹는다는 건 적어도 한의학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합성비타민을 포함한 모든 합성 음료나 합성 의약품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다. 일정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몸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함은 불문가지다. 응급의 사용이 궐수적인데도 적절 사용이 불가할 때, 응담성분의 화학약품을 대용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천지자연에 대응하여 소우주라고도 불리는 우리 몸의 하늘과 땅도 중용을 추구한다. 이처럼 중용의 미덕은 탁상공론처럼 떠드는 형이상학적 이론이 아니고 발한 뿐, 비타민 한 알을 먹는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실천의 원리다. 박찬호 선수의 동생도 아마 이런 한의학적 마인드에서 친형의 비타민 복용을 말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金仲山교우/M.D/한의학칼럼니스트/ cgjung5256@yahoo.co.kr〉

UHAKHUB www.uhakhub.com
2005년, 2006년 삼성카드 해외캠프 주관처
2005년 YTN 단기유학 주관처
유학허브
Global Leader의 세계로 초대!
· 세계 명문대학 · 대학원 유학
· 세계 명문 사립 초 · 중 · 고 유학
원장 정성희(가정교육과 79학번) 강남/ 대전/ 종로/ 고려대
전국대표전화 : 1588-8876

최참판家 野生茶

고대교우님들의
품격있는
茶道文化에
일조하겠습니다
박경리 여사의 소설 '토지'의 무대이기도 한,
민족의 영산 지리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이곳에서 자라는 야생 차나무의 어린 찻잎을 한잎 한잎 손으로 따 만든,
가미솥 덖음 전통수제녹차로써 차의 맑은 향 그리고 특유의 색과 맛이 나도록 한 것입니다.
최참판가
•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섬진강변
• 대표 : 최영옥 011-9311-2495 • E-mail : ywchoi8837@hanmail.net

2006 학년도 제2 학기 개인명의장학금 기탁자 명단 (가나다 順)

"나는 우리 고대후배들이 예뻐죽겠다니까요!"



개인명의장학금 제도에 보내주신 뜨거운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모교 후배에게 지구까지 짊어질 기개와 경륜을 전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교우회 사무처 ☎921-2591~5)

高麗大學校校友會 · (財)高大校友奬學會

교우님들의 연락처를 확인중입니다

교우회에서는 "봉사하는 교우회"를 모토로 교우님들께서 보다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항상 최신정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되었을지 모를 교우들의 주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아래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교우님들의 자택 및 직장정보, 연락처 등을 확인코자 하오니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교우님들의 개인정보 확인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기 간 : 2006년 9월 1일 ~ 2006년 12월 29일
- 연락처 : 교우회사무처 921-2591~5 E-mail : dwlee3369@hotmail.com
  콜센터 : ☎ 1588-1905 Fax : 921-2590, 921-9944

※ 이후 주소변동시 상기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우님들의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高麗大學校校友會

교우회비 납부안내

항상 모교와 교우회 발전에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24만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우님의 성원으로 운영되는 교우회는 참여하는 교우회, 봉사하는 교우회, 모교를 돕는 교우회의 역할을 배가하여 보다 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교우회로 거듭나기 위해 교우장학금 지급, 교우회보 발행, 신하교우회지원 확대 및 대 교우서비스 향상, 모교 적극지원 등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교우 여러분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합니다.

- 교우회비 : 연 회비 3만원(평생회비 50만원)
- 계좌번호 : 하나은행 391-810001-60004 (예금주: 고려대학교교우회)
  국민은행 048-25-1917-080 (예금주: 고려대학교교우회)
- 문 의 처 : 교우회 사무처(921-2591~5, 1588-1905, Fax.921-2590
  dwlee3369@hotmail.com)

高麗大學校校友會

동아일보
www.donga.com



동아일보는 8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민족의 독립, 민주주의의 구현, 문화창달, 자유와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 건설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불편부당(不偏不黨) 시시비비(是是非非)의 정신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 왔으며 앞으로도 권력비판의 정도(正道)를 걸어갈 것입니다. 자식정보사회와 미디어 융합의 시대를 맞아 동아일보는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신문'으로 거듭 태어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론지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 독자투고 | 전화 02-2020-1290 팩스 02-2020-1299 야간팩스 02-2020-1249 | 독자서비스센터 · 제언 | 전화 02-2020-0200 팩스 02-2020-1139
| 구독신청 · 배달안내 | 전국 1588-2020 | 광고문의 | 전화 02-2020-0500 무료전화 080-233-8585 팩스 02-2020-1419



우리가 만든 맑은 하늘

맑은 비로 돌아옵니다

하늘이 맑아지면, 사과를 씻어 먹어도 될 만큼 맑은 비가 내립니다
온실가스 걱정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 청정에너지 원자력이 지켜가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

교우회비



정성 모교와 교우회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시는 24만 교우 여러분께 송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교우회비와 발전기금은
전액 모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과 모교의 발전기금으로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우님들과 모교를 위해
봉사하는 교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회비 (3만원)●

보성전문

김태윤(40)

법과대학

▲법학과

곽인오(51) 정진두(53) 황병무(56) 조광국(58) 이화순(59) 정선기(59) 백정규(60) 황정남(60) 오세종(61) 이주두(61) 이정순(65) 김경로(66) 백백호(70) 김세수(75) 김성갑(76) 심세준(77) 유승철(77) 전영하(78) 정운용(78) 김혁호(80) 김현정(80) 조영선(81) 이장우(82) 장인철(83) 이준갑(83) 김상백(84) 이준택(84) 백정환(85) 김태균(87) 임석동(88) 남형일(88) 송인광(95)

경영대학

▲경영학과

김관수(55) 유태종(57) 김영식(58) 배영식(58) 이두홍(58) 김영식(59) 손준근(59) 양계관(59) 홍용표(60) 김철규(61) 이용구(62) 최부용(62) 한상용(63) 이천우(63) 김주일(63) 최종일(64) 류경희(69) 이장숙(69) 심세환(70) 노태균(73) 서윤덕(76) 김윤남(76) 이계남(76) 박 훈(80) 김병조(80) 김형구(82) 손병국(83) 박기호(84) 박상목(84) 박준규(85) 손성구(87) 김태희(90) 이정훈(91) 유승수(92) 변일석(93) 김용식(95) 백도현(96) 전병연(96) 이유환(98) 구범모(99) 박정배(99) 이지혜(00) 이혜석(00) 이현구(01)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구본철(66) 허용범(81) 김형준(82) 김준성(83)

▲영어영문학과

황규독(54) 박홍근(72) 홍연실(72) 정 통(78) 구자섭(81) 유경희(82) 선동현(90) 이상욱(95) 김낙윤(95) 박성비(97) 박유진(01)

▲철학과

최인수(56) 김형만(70) 김독섭(73)

▲한국사학과

김도훈(69)

▲서양사학과

선대광(69)

▲동양사학과

심준보(69)

▲사학과

맥계열(48) 서범석(57) 김영달(59) 홍석봉(59) 최정희(64)

▲심리학과

최영철(62) 조용성(63) 서창욱(65) 기영면(93)

▲사회학과

선광철(65) 백희준(66) 박진석(68) 윤진환(89)

▲독어독문학과

이용전(72) 김순태(81) 선연섭(81) 류명환(87)

▲불문학과

정수보(82) 김은정(83) 노준근(85) 유지연(99)

▲중어중문학과

이상억(73) 노언구(82) 박사일(93) 홍태형(00)

▲노어노문학과

김지훈(88) 김형중(94) 오준석(94)

▲일어일문학과

선주연(96)

▲서어서문학과

이정일(96) 서연석(98)

생명과학대학

▲식량자원학과

안영환(57) 김덕목(58) 민경석(60) 심상국(60) 이병민(61) 안태영(63) 정정욱(71) 김진환(84)

▲산림자원학과

김종관(62) 이상용(63) 민경욱(79)

▲식품자원경제과

국동희(61) 우광오(73) 김상욱(81) 자우호(91) 장동구(01)

▲응용생물환경학과

권오복(67) 정석우(72) 위용량(77) 김종득(79) 박주진(80)

▲응용동물과학과

이영복(82)

▲식품공학과

김기현(76) 김성섭(77) 양택호(93)

▲생물학과

황 권(60) 전명관(62)

▲생명과학부

최진용(99) 구현모(00)

▲환경생물공학부

이태규(98)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한승조(48) 변영호(56) 최종락(58) 김은진(59) 이창근(60) 최인규(62) 이미용(64) 김홍수(65) 노관환(65) 신현수(75) 최효호(79) 이한근(83) 김용호(84) 이경표(85) 김준성(86) 문병주(91)

▲경제학과

김희동(54) 장윤종(59) 김근수(59) 이석규(59) 신규호(60) 이홍표(65) 신인섭(67) 김형우(68) 이용택(79) 김영규(76) 곽영대(77) 권치상(77) 성우경(77) 최진구(78) 윤준근(80) 한기홍(81) 김경용(82) 유승재(85) 전병구(85) 이희근(85) 추기능(89) 최현철(92)

▲통계학과

김광규(63) 최용규(63) 정경호(67) 김한진(72) 이상노(73) 장한호(82) 임상보(82) 장명희(83) 박선영(88) 이유영(98)

▲행정학과

박근성(57) 이진호(58) 유병원(60) 장노병(69) 정 민(72) 김동조(73) 선귀섭(76) 최동환(76) 이영웅(85) 홍성철(92) 변용석(94) 김윤하(97)

▲신문방송학과

박현숙(67) 송성희(71) 유창노(72) 전영순(75) 장주희(94) 김학철(00) 조윤상(98)

이과대학

▲수학과

선수길(62) 이계준(63) 문경배(79) 박상태(82) 윤선경(01)

▲물리학과

한호석(58) 최남주(61) 노태현(73) 손동기(75) 이승택(89)

▲화학과

윤상원(58) 김수일(60) 김덕현(64) 류영진(83) 우경자(83) 김동일(84) 정세연(85) 김수용(86)

▲지구환경과학과

김재형(69) 김대섭(73) 이광구(79)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오안량(68) 김희환(69) 이춘호(69) 이차환(69) 정선양(69) 허규정(69) 권대현(69) 선영권(77) 김규석(80) 이현숙(93) 안지현(99) 김영준(00)

▲건축공학과

주창수(65) 천호대(71) 이해관(78) 황동남(78) 전근우(80) 전환세(86) 윤오규(92) 정수현(93)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심세범(64) 박문순(69) 김광수(71) 박공렬(79) 정호교(79) 김만덕(82) 정세기(84) 정용덕(84) 백선욱(98)

▲산업시스템정보공학과

박병욱(70) 이강배(85)

▲기계공학과

양세성(70) 이관희(74) 정승환(75) 배상규(77) 이영섭(78) 홍종서(85) 박상덕(90) 백중엽(93) 장동호(97)

▲전기공학과

이상석(71) 김세훈(73) 선경호(76) 권윤호(78) 박태홍(81) 이일우(83) 류지호(90)

▲전자공학과

서정석(74) 배영준(76) 유호선(78) 전성연(82) 이상호(90)

▲금속공학과

김병순(72) 최윤호(80) 김세훈(88) 김광훈(94)

▲건기 · 전파 · 전자공학부

권덕현(99)

의과대학

▲의학과

김순희(50) 송태호(57) 장주남(58) 김 결(62) 심종우(62) 최봉기(69) 이주덕(74) 박향권(76) 박현철(77) 윤형선(80) 이선우(82) 김한수(84) 박동건(85) 조정석(85) 이현진(84)

장병덕(86) 이은수(86) 양선우(93) 김계상(94) 조영준(94)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병호(73) 심영애(73) 조영선(76) 김방득(81) 김종서(88)

▲지리교육학과

이용균(86) 조혜인(87) 송병양(91)

▲가정교육학과

변미경(75) 윤미숙(85)

▲수학교육과

양윤정(91)

▲미술교육과

변병일(96) 정민호(96) 송희희(99)

▲컴퓨터교육과

김경환(99)

▲체육교육학과

유동근(78) 이윤환(85)

간호대학

▲간호학과

김진영(69) 김기정(71) 홍명선(72) 김선호(77) 제현우(87)

정보통신대학

▲컴퓨터학과

선행하(91) 최재준(95) 체희서(01)

미술학부

▲미술학부

김방섭(00)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김성호(88) 박현선(98)

▲영어영문학과

강윤식(88) 황현덕(01)

▲고고미술사학과

김민수(00)

과학기술대학

▲정보수학과

윤성정(84) 홍영규(00)

▲신소재화학과

박용성(94)

▲컴퓨터정보학과

김우진(98)

▲전자및정보공학부

문성욱(88)

▲식품생명공학과

김덕수(89)

경상대학

▲경제학과

염중기(83) 선동호(84) 최병학(84) 이상철(89)

▲경영학과

이세희(85)

▲무역학과

김부기(81) 이상협(82)

▲경영정보학과

서천석(94) 이정복(98)

보건대학

▲임상병리학과

심세동(89)

▲보건행정과

문신재(41)

▲식품영양학과

최유호(38)

▲환경보건학과

황선례(37) 홍규택(41)

▲방사선과

이성구(04)

일반대학원

▲박사

이공훈(03) 김한성(04) 심련수(04) 이경재(06)

▲석사

김영규(90) 양기승(00) 오세정(04) 김경석(05) 최재억(06)

경영대학원

▲석사

상 원(17) 엄재건(44) 홍성식(72) 한광택(75)

▲연구과정

이공호(01) 우계영(04) 심재동(04) 정권경(13) 최영국(14) 권홍희(15) 이명기(15) 김귀진(37) 서권진(37) 곽인구(38) 김상태(38) 최한철(38) 황선학(41) 변희준(42) 허건행(45) 정행조(47) 김자유(52) 조경호(53) 김부광(56) 선기천(57) 이희석(59) 최현희(60) 배진남(72) 배수만(82)

▲최고금융과정

남택영(01) 선광언(05) 손상섭(07)

▲최고경영자과정

김경오(07) 김윤권(20) 박기상(28) 전준선(28) 서인교(31) 이시호(32) 금영수(34) 이충길(36) 김태희(42) 오광현(44) 이성호(45) 장삼영(54) 이동석(55) 이상현(56) 한명섭(57) 오공열(58) 김정남(59) 조득현(59)

▲CEO최고경영자과정

김경애(08)

▲유통전문경영자과정

장석준(00) 김범준(07) 김상진(09) 김장우(21)

교육대학원

▲석사

이봉연(08) 김영프(13) 이병직(15) 노양성(16) 김범열(24) 선홍기(26) 최하용(27) 김준희(28) 이기주(30) 박우규(31) 안바원(35) 이은수(40) 최혜성(41) 곽은희(43) 김중배(43) 임감석(43)

▲고위교육과정

이선재(01) 손상호(02) 허정근(02) 박양갑(11)

▲사회교육경영자과정

김선희(05)

▲인재개발최고위과정

이기동(01) 조근식(01)

▲클로벌리더최고위과정

곽영희(18)

생명환경대학원

▲석사

오동준(37)

▲고위자연정책과정

이정순(06) 이기철(25)

정책대학원

▲석사

오사욱(13) 류순구(27) 김형수(28) 박광식(29) 김윤육(30) 김성배(31)

▲연구과정

김형두(10) 임원빈(11)

▲고위정책과정

김문환(02) 박문석(08) 백연수(13) 차계세(13) 허갑남(15) 정정성(20) 김용언(24) 임영덕(35)

공학대학원

▲석사

전선학(23) 김경섭(27) 이계현(27)

▲연구

권오현(08)

▲고위산업정책과정

장관수(01) 박홍순(11) 홍순배(12)

▲건설경영최고위과정

권기협(01) 이주팔(02)

▲반도체최고위과정

서인수(01) 김승렬(02)

경영정보대학원

▲고위관리과정

손병재(01) 최승락(02) 이성계(03) 이창희(03)

▲경영품질최고경영자과정

이주철(04)

언론대학원

▲석사

이주우(18)

▲최고위언론과정

권영수(02) 이순목(03) 이진환(04) 문광호(09) 맹호근(29)

노동대학원

▲석사

윤병철(01)

▲고위지도자과정

이돈남(01) 안상수(03) 정홍선(03) 지광학(12) 송태명(13)

법무대학원

▲석사

박영호(12)

▲연구

장준석(10)

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정보통신과정

박평서(02) 이주학(02) 김예리(07) 김문배(08) 이상희(08) 김경예(09) 김임규(15)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지평은(02) 황승영(07) 김정수(08)

보건대학원

▲석사

장지선(07)

참여(3만원)

나복영(의학42) 지연태(법률48) 한호선(행정55)

● 분담금●

상임이사(20만원)

장홍석(지질73) 고학용(행정53) 구권서(경제70) 구권서(경제70) 김병국(64경연) 김성만(10.5년생)

김수명(경제68) 김원철(05명사전)
김재우(경영62) 김창호(경제70)
박정원(경영81) 박종원(금속69)
박찬홍(국문75) 박형원(25정석)
백홍호(상학55) 석영철(법학62)
송태근(심리71) 신남용(경영61)
신유석(법학90) 안창균(산공72)
안찬호(전자78) 안홍용(상학 67)
원종남(11경연) 윤동원(행정57)
윤미경(영교83) 윤진식(경영65)
윤태하(경제57) 이근규(국문79)
이근영(법학57) 이만득(경영75)
이석철(경영65) 이정치(농화61)
이정효(36경연) 이종문(법학57)
이종은(22정연) 이종찬(법학66)
인권환(국문56) 장기상(축산70)
장기철(55경연) 정호석(사회80)
조우현(사회64) 전동일(화공75)
최근만(06경연) 최선엽(임학68)
최용병(제료70) 최종익(농예화57)
표경열(19경연) 허호기(경제61)

● 평생회비 (50만원) ●

경영대학

▲경영학과
정연구(85) 최성민(88) 현주엽(94)

문과대학

▲언어학과
이상호(95)

사범대학

▲교육학과
정미화(88)
▲영어교육학과
이복호(96)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목민규(95)
▲행정학과
김행영(70) 정 민(72)

이과대학

▲수학과
이양기(68)
▲물리학과
강학준(96)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조창호(70)

의과대학

▲의학과
이병호(78)

보건과학대학

▲환경위생학과
황선례(37)

경영대학원

▲석사
임채주(36)
▲최고경영자과정
김태희(42) 한명섭(57)

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최석호(30)

언론대학원

▲최고언론과정
장상홍(17)

교육대학원

▲연구
강민지(40)

경영정보대학원

▲경영품질최고경영자과정
홍성희(03)

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정보통신과정
이경일(02)

공학대학원

▲건설경영최고위과정
김민규(06)

※지난호(433호)제S13면에 실린 교우회비 납부자 명단에서 홍소자(영문69)로 잘못 표기 되었기에 홍소자(영문59)로 정정합니다.

100주년 기념사업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KOREA UNIVERSITY GLOBAL PRIDE

2006. 7. 26 - 8. 25 (금액순, 단위:원)
자료제공 : 모교 대외협력처

100주년기념관건립기금

자동전화모금(060-700-0505) 103,957

100주년기념 발전기금

유정순(입학67) 200,000
최윤희(간호73) 100,000

경영대학 장학기금

(주)상도건영 50,000,000
서비스최고경영자과정10기 30,000,000
황규승(교수) 3,250,000

경영대학 소암장학기금

스몰톡인베스트먼트 37,584,000

문과대학 장학금

(주)열린책들 3,132,000

공과대학 장학금

이승환(제료공78) 2,000,000
김진홍(금속공83) 1,500,000
변동욱(경영88) 1,000,000
성윤모(금속공82) 1,000,000
(주)LG화학 101,849,000

간호대학 장학금

한정희(간호70) 2,000,000
이재필(간호75) 1,000,000

보건과학대학 장학금

(주)에이씨엔피 1,500,000

일반대학원 장학금

국방과학연구소 23,960,000
대한법무사협회 3,000,000
산학협동재단 3,000,000
(주)제이씨 1,200,000

교육대학원 장학금

(재)이스테파노(載元)장학회 3,000,000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장학금

형예장학회 5,227,000

장학금

(재)이스테파노(載元)장학회 6,132,000
형예장학회 16,525,500
앨트웰민초장학재단 67,151,000
방일영문화재단 29,582,000
(재)유한재단 21,449,000
(재)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ART 21,049,000
(재)한석경 함흥장학회 10,000,000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9,391,000
(재)현송문화재단 7,500,000
(재)돈암장학회 7,000,000
한라공조주식회 4,259,000
예은장학재단 4,000,000
행정자치부 3,997,000
윤성구(경제88) 3,774,000
(주)동방 3,697,000
삼현철강(주) 3,200,000
동일TAKARA통상 3,156,000
오운문화재단 3,132,000
우석문화재단 3,132,000
운경재단 3,132,000
재단법인금강장학회 3,132,000
배원장학재단 3,000,000
(주)현대영어사 2,000,000
춘강문화장학재단 2,000,000
삼송장학회 1,850,000
대한전기협회 1,500,000
(재)과천시예향장학회 1,430,000
(사)한국화학공학회 1,000,000
동양종합금융증권 500,000
한국철강협회 300,000

간호대학 건립기금

변수자(간호64) 2,000,000

제2정경관 건립기금

보람건영(주) 5,000,000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인콤정보통신(주) 24,000,000
(주)에프.지.에프 4,000,000
한국동서발전(주) 4,000,000
강기준(경영대학원) 1,000,000
권형석(경영대학원) 1,000,000
김기택(경영대학원) 1,000,000
김석주(경영대학원) 1,000,000
김성환(경영대학원) 1,000,000
김순호(경영대학원) 1,000,000
김천섭(경영대학원) 1,000,000
김한규(경영대학원) 1,000,000
박선옥(경영대학원) 1,000,000
박선의(경영대학원) 1,000,000
박재봉(경영대학원) 1,000,000
박판호(경영대학원) 1,000,000
서정옥(경영대학원) 1,000,000
신정례(경영대학원) 1,000,000
안윤지(경영대학원) 1,000,000
이선애(경영대학원) 1,000,000
이운영(경영대학원) 1,000,000
이재성(경영대학원) 1,000,000
이재수(경영대학원) 1,000,000
이제희(경영대학원) 1,000,000
이창직(경영대학원) 1,000,000
이홍자(경영대학원) 1,000,000
장윤석(경영대학원) 1,000,000
정희공(경영대학원) 1,000,000
조한홍(경영대학원) 1,000,000
주영섭(경영대학원) 1,000,000
홍중구(경영대학원) 1,000,000
황장성(경영대학원) 1,000,000
손호성(교수) 1,000,000
박용두(교수) 1,000,000

문과대학 발전기금

서경석(사학61) 5,000,000
윤재명(국어국문52) 1,000,000

공과대학 발전기금

홍관석(일반) 500,000

의과대학 발전기금

(주)코리아몬뱅크 8,159,360
손호성(의학86) 5,000,000
이형복(의학67) 3,000,000
(주)엔터큐브 50,000

공과대학 발전기금

(주)늘푸른오스카빌 30,000,000
건설경영 최고위과정8기 20,000,000

생명환경과학대학원 발전기금

강도영(생명환경과학대학원) 600,000

체육위원회 발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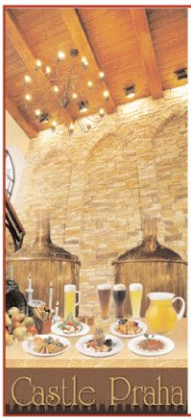
서울시체육회 야구협회 11,400,000
고려대학교 연수관식당 300,000

교육환경개선기금

전성근(경제87) 1,000,000

문화예술기금

신동와인판매(주) 8,640,000



캐슬프라하
Castle Praha
The Finest House Beer in the World

필스너와 버드와이저의 본고장
체코의 기술로 빚은 정통 맥주
※연말 교우회 모임 대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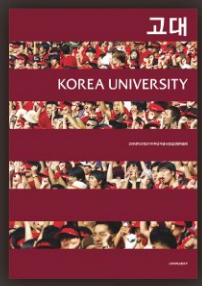
■ 강남역 6번출구 100m직진 파고다타워 지하2층
■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1:30 ~ 새벽 2시 (금, 토요일은 새벽3시까지)
•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4:00 ~ 자정까지
■ 예약문의 : 02 - 596 - 9200~1
■ www.castlepraha.co.kr
■ 대표 : 조완제(경영75)



※교우님들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모십니다

고려대학교 개교 100 주년 기념 사진집

"고대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100주년기념사진집간행위원회 편
24×33.5㎝, 호화 케이스장정, 280쪽, 6만원

사진 : 윤주영, 김승근, 조천용, 안장헌, 이행훈, 구지호
신동인, 최병중, 김태형, 이기범, 김은구, 최창호
이종찬, 정경열, 김정현, 최형락, 서동욱, 김경희
장소희, 박종혁, 노지환
컬러 매니지먼트 : 최창호
북디자인 : 장병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교우들이 모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한데 모였습니다. 선동의 직장 사이로 흘러오게 변한 면모하는 고려대학교 캠퍼스의 구석구석과 고대인들의 일상을 렌즈로 담아냈습니다.

21C에서 접근 활영, 1부분으로 정리된 사진만 2권(대여 때, 이주 구체계에 걸친 모습 활영, 총 9장에 걸친 시간 계획과 세심한 컬러 매니지먼트 작업 등, 이 사진집에 기울인 노력은 오늘의 고려대학교를 있게 한 고대정신과 맥을 같이합니다. 다른 어느 대학도 시도할 수 없는, 모모의 동문들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된 코모 백도, 모교에의 경의" (2면).



이 사진집에서 청다웠던 옛 교정의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몰라보게 변한
21세기 고려대학교를 느껴보십시오.



구입문의 : 02-3290-4230~2 고려대학교출판부
- 전화를 주시면 전철의 안내해 드립니다.
- 책값 5만 원을 입금하시고 연락주시면 즉시 무료배송합니다.
- 신용카드 구매도 가능합니다.
고려대학교출판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kupress.com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049-01-0049-273
하나은행 288-810030-17405
농협중앙회 026-01-012561
우체국 012187-01-000165

고대병원 종합건강진단 교우 혜택 안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는 교우(재학생 포함) 및 교우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첨단장비, 안락한 시설로 암 등 성인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우 및 교우직계가족께서는 기본 진단비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대장내시경, 폐 CT, 뇌 MRI, 전신 암 검사 등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일주일 후에 확인 가능하며,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우도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면 고국에 방문한 기간(일주일)을 활용하여 검사와 결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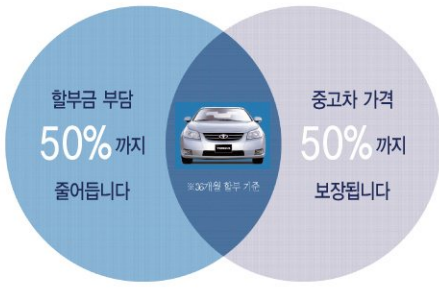




문의 및 예약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

● TEL: 02)920-5491,5106 FAX: 02)920-5108 ● 홈페이지: www.kumc.or.kr ● 예약 및 상담시간 : 평일 07:40~17:30 · 토요일 08:30~12:30 ●

GM DAEWOO
Driving Innovation



내일을 사는 지혜

차를 사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내일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차를 구입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분은 토스카 새로운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토스카 새로운 할부 프로그램

■기간: 10월 3일까지 ■대상차종: 토스카 가솔린2000(전 및 개인사업자 고객)
■제외품목: 옵션 및 장착비용(엔터테, 엑서, 크레인 차량), 법무업무 · 조합비 및 탁송료, 등록세(고객사 부담)

신차 가격의 50%만 할부로 내십시오. 나머지는 3년 뒤에 받거나 타시면 차로 대신 받겠습니다.
등 60~70%대의 할부금 비중에 비해, 중형차 구입의 부담스러운 기존 할부방식로 선수금을 뺀 나머지 50%를 할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스카 새로운 할부 프로그램은 나머지 50% 금액을 제외하고 할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월 납부금이 획기적으로 저렴해집니다.
특히 할부에서 제외된 금액은 3년 후에 본인이 타시면 중고차로도 대신 갚을 수 있는 대폭적인 혜택입니다.

3년 후, 중고차 가격을 최고 50%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국내 최초시행)
제 값 받기도 힘들고 복잡한 할부도 골치거리인 중고차 문제, 토스카는 처음 생각해 드리는
50%의 국내 최고수준으로 중고차 가격을 보장해야, 지점대우가 직접 판매까지 도와드립니다.

토스카 2.0 CDX 일반형(36개월 할부 기준)

구입조건		기존 승용 할부	토스카 새로운 할부
차량가격		21,890,000	21,890,000
선수금		2,290,000	2,290,000
할부원금	주할부	19,600,000	9,800,000
	유예할부	0	9,800,000
월할부금		609,756	367,892

•등급유일 6기통 엔진 •등급유일 5단 자동 변속기 •Rebound-Spring 서스펜션으로 도로충격 최소화 •사이드, 커튼 에어백 등 6개의 첨단 에어백시스템 •5.1버날 오디오시스템으로 하이엔드급 음향 제공(AV 선택사)

www.gmdaewoo.co.kr
영업소 대표전화 1588-7288

정부권인 표준연비 및 등급 •토스카 1.6 2.0 DOHC 가솔린2,000cc 1,603kg/12.5km/L 2등급 •토스카 1.6 2.0 DOHC 가솔린1,998cc 1,475kg/10.9km/L 3등급 •토스카 1.6 2.5 DOHC 가솔린2,498cc 1,669kg/10.3km/L 2등급 •토스카 1.6 DOHC 가솔린1,598cc 1,468kg/10.9km/L 2등급 •토스카 1.6 DOHC 가솔린1,598cc 1,420kg/13.7km/L 3등급 ※표준연비 시험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05-41호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따른 연비입니다.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정비 및 장착용품에 따라 실연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사진은 제품 외관 설명을 위한 것으로 실제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omorrow Standard
TOSCA

Think Tomorrow!

자연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롯데백화점 환경가치경영 - 더 푸른 내일을 생각합니다

어린이 환경 학교 [illegible]
친환경 전단발행 [illegible]
옥상 생태공원 [illegible]
환경 상품권 캠페인 [illegible]

ISO 14001 인증기업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공한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적 인증

롯데백화점